

이 것 + 이 것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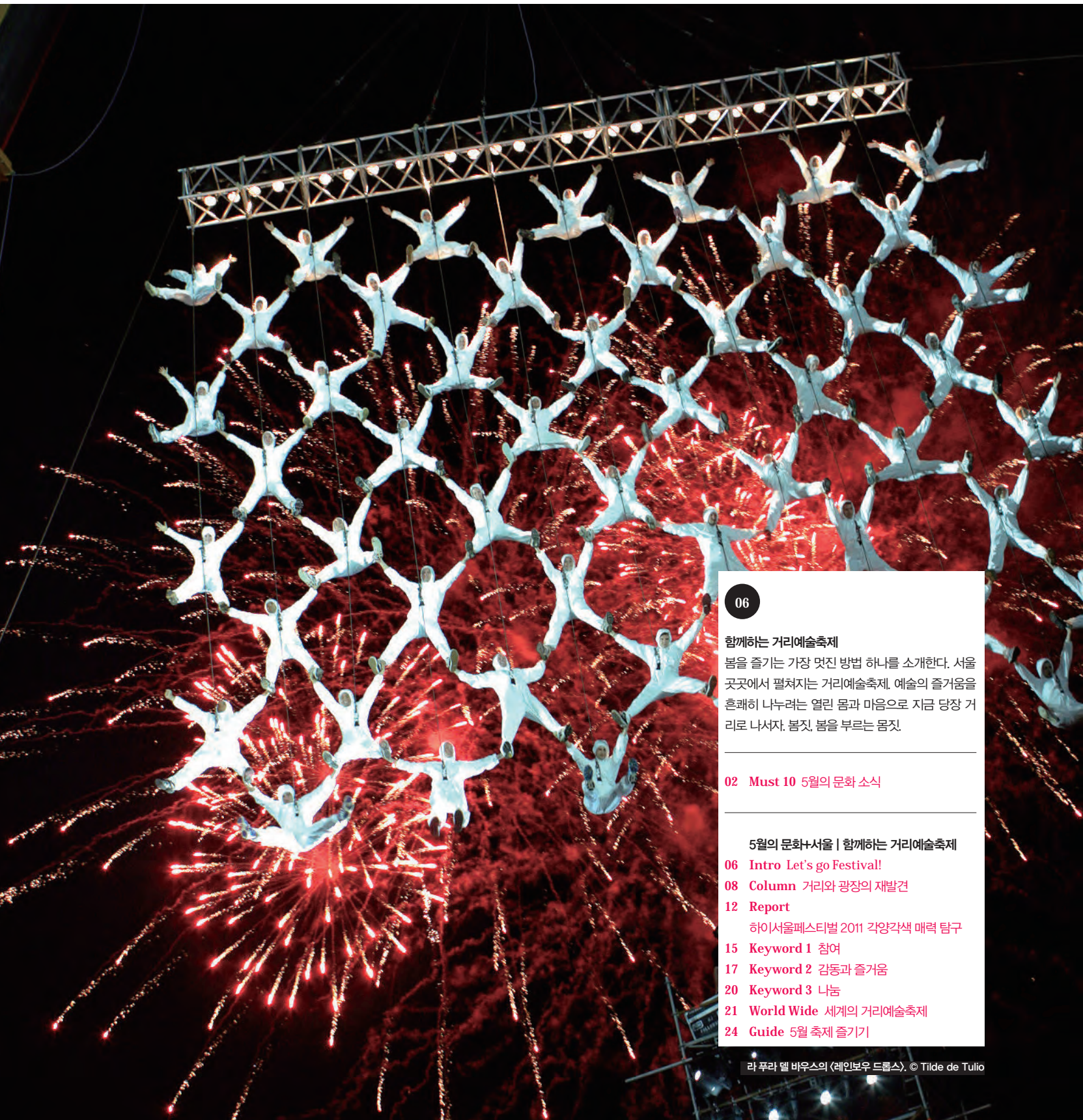
2011 05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Conte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5. vol 51



06

함께하는 거리예술축제

봄을 즐기는 가장 멋진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예술축제. 예술의 즐거움을 흔쾌히 나누려는 열린 몸과 마음으로 지금 당장 거리로 나서자. 봄짓, 봄을 부르는 몸짓.

02 Must 10 5월의 문화 소식

5월의 문화+서울 | 함께하는 거리예술축제

06 Intro Let's go Festival!

08 Column 거리와 광장의 재발견

12 Report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각양각색 매력 탐구

15 Keyword 1 참여

17 Keyword 2 감동과 즐거움

20 Keyword 3 나눔

21 World Wide 세계의 거리예술축제

24 Guide 5월 축제 즐기기



28

26 Image Seoul 웃음

사람과 사람

28 Depth Interview

대중을 위한 예술, 대중을 향한 예술
배요섭과 다리오 바치카

36 Young Artist 2011

반 발작 미학에 대하여
주목받는 젊은 복디자이너 송윤형

42 My Story of Seoul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극장, 소설가 김중혁

44 Life in Seoul

'오버'스러운 서울의 하루하루



36

지금 서울은

46 Art Gallery

〈문화+서울〉이 주목한 5월의 작품

48 Issue in Seoul 1

서울국제문학포럼, 작가들의 지적 놀이마당

52 Issue in Seoul 2

〈푸르른 날에〉와 〈오월애〉로
5.18 콘텐츠 돌아보기



52

서울 너머로

56 해외기획

세계의 별별축제 Berlin, Montreal, Beijing

58 해외뉴스 Paris, New York, London

문화@서울

62 Reader's Album 독자사진전

64 Seoul Art Space

금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
금천예술공장 해외 입주 예술가 4인

70 SFAC Critique

현대화의 한 가능성,
극단 골목길의 〈오이디푸스왕〉

74 Cultural Calendar

77 SFAC News

84 Board



64

Cover story

● 그랑드 페르손느 (Les Grandes Personnes), 프랑스

자신들의 예술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대중화되어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인 공연단체.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해외초청작 ‘여행자 (Les Touristes)’

프랑스에서 온 4미터 크기의 거인 인형들이 서울을 탐험하며 관광영소를 찾아다니는 거리극. 길을 물어보거나 지낼 곳을 찾으려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4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정경미, 변현정,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교열 최귀열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Must 10



01

© 한성필, Secret Tale, 180X25cm, Chromogenic prin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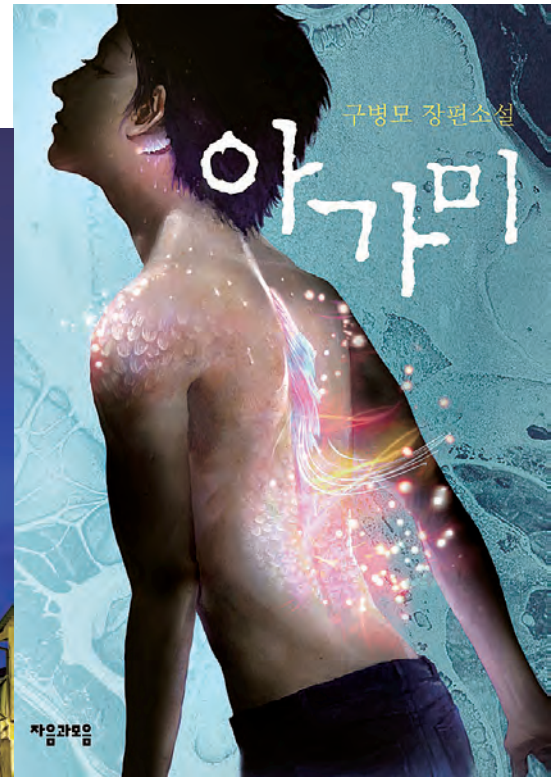
01

일상을 드라마틱하게

문화술프로젝트 <아트캐슬展> | 4월 15일~5월 26일 |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 | 02-2157-8770

현실에 실재하는 공간과 있을 법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공간. 그리고 인간의 시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3차원의 공간감을 미디어 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전시다. 전시공간 외벽은 성(castle)의 모습을 표현한 한성필 작가의 사진 작품으로 랩핑된다. 또 실제 있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인화된 사진)에서 3차원의 공간처럼 다시 읽히게 하는 박준범 작가의 작업처럼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일종의 환영(illusion)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경험.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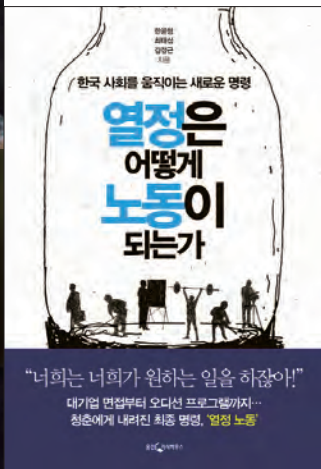
02

우리는 모두 한때 물고기였어

<아가미> | 구병모 지음 | 자음과모음 펴냄

글맛 제대로 내는 작가 구병모의 신작 장편.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사전을 옆에 두고야 만다. 맛깔 나는 우리말이 많아서 계속 사전을 뒤적이게 하는 것.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보여준 놀라운 상상력과 개성 넘치는 서사는 한층 깊어진 주제의식으로 더욱 강렬해졌고, 절망적인 현실을 판타지적 요소로 반전시키는 특별한 미감 또한 섬세하고 정교해졌다.

03



04



05

03

대학로와 친해지자

대학로연극투어 | 5월 29일 오후 12시 30분 |

대학로 일대 | 02-743-9333

대학로와의 일일사색(一日四色) 만남. 열정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서울연극센터가 운영하는 대학로연극투어가 그것. 극장 뒤편으로의 은밀한 초대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스테이지투어', 배우에게 듣는 대학로 그리고 연극이야기 '배우와의 만남' 등이 준비되어 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04

박카스 권하는 사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

한윤형, 최태선, 김정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참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나? 열정노동의 논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보여주는 귀한 보고서. 사회 평론가 한윤형과 칼럼니스트 최태선, e스포츠 전문 기자 김정근이 함께 썼다.

05

그로테스크 리처드 3세

〈리처드 3세〉 | 5월 26일~5월 28일 |

LG아트센터 | 02-2005-0114

루마니아의 연출가 가보 토포와 그가 이끄는 클루지 헝가리안 시어터(Hungarian Theatre of Cluj)의 셰익스피어는 강렬하다. 가보 토포는 초현실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이며 신선한 자극을 선사한다. 명성에 걸맞게 그는 루마니아 대표 연극상인 UNITER Awards에서 최고 연출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고, 영국 비평가협회 선정 최고 해외연극상을 받았다.

Must 10



06

카리스마 첼리스트의 마지막 꿈

〈미샤 마이스키 패밀리 콘서트〉 | 5월 15일 | 예
술의전당 콘서트홀 | 02-599-5743

유려하면서도 힘 있고 낭만적인 톤으로 첼로음악
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샤 마이스
키. 그의 마지막 꿈은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다. 그 첫 무대가 한국에서 시작된다. 딸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와 아들 사샤 마이스키의
바이올린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영혼을 울린다.

07

영화관? 미술관?

〈피쳐링 시네마〉전 | 5월 31일까지 |
코리아나 미술관 | 02-547-9177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와 의미를 창조하는 비디
오 아트와 한 경향을 소개한다. 비디오프로젝트와 실
험영화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국내외 9명 작가들
의 영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브루스 코너는 뉴스
릴, 과학 영화, 텔레비전, 광고, 포르노, 여분의 필
름을 무작위로 편집한 파운드 푸티지 영화를 제작
한 작가다. 그의 작업은 이후 실험영화 작가들에
게 큰 영향을 미쳤다.

08

다들 무고하십니까

〈원전을 멈춰라〉 | 히로세 다카시 지음 |

김원식 옮김 | 이음 펴냄

방사능 비가 내리는 대한민국.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평생을 원자력과 핵의 위험성 문제
에 천착해온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가 원전
의 진실을 밝힌 책. 1989년에 출간되었으나 재출
간으로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 뒤편
에는 인류 절멸의 위험을 담보로 원자력산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과 이러한 사실의 은폐
에 동참하는 저널리즘이 있다는 것이 히로시의
주장이다.



07

08

을조운 다추봄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원전을 멈춰라

김원식 옮김 • 이음 펴냄

이음

09



09

본다는 것의 의미

〈정수진〉전 | 5월 22일까지 | 몽인아트센터 | 02-736-1446

시각 언어의 고유함에 천착해온 정수진의 판화작업을 볼 수 있다.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수진의 화면은 특정 내러티브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순수한 형상 자체를 시각적으로 바라보려는 과정이다. '본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10



10

평범한 그 남자, 안중기

〈민들레 바람되어〉 | 5월 29일까지 |

아트원 씨어터 2관 | 02-766-6007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코르 공연에도 막공은 있는 법이다. 2008년 초연을 올린 〈민들레 바람되어〉는 평범한 남자 '안중기'의 일생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관객 눈에만 보이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 곳곳이 사랑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진한 감동을 남긴다.



함께하는 거리 예술 축제



봄 짓 , 봄 을 부 르 는 몸 짓

5월이다. 도시에서 봄을 즐기는 방법은 꽤 다양하다. 가깝게는 여의도에 벚꽃놀이를 갈 수도 있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잔디밭에 누워 단잠을 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멋진 계획이 있다. 색다르고 특별한, 서울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른바 거리예술축제다.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장소도 대부분 접근하기 쉬운 곳이다. 게다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다. 대신 준비할 것이 딱 하나 있다. 예술의 즐거움을 흔쾌히 나누려는 열린 몸과 마음이다.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생긴다. 마음을 열면 어느덧 공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못 믿겠는가. 그럼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자. Let's go Festival!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모습.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거리와 광장의 재발견

공연예술은 왜 거리로 귀환하는가

우리 전통연희는 거리의 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서 양식적 변화라든가 미학의 구축 같은 극적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신명이 넘쳤다. 축제 정신이 살아 있었다. 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같은 전통극을 공연하는 예인들은 장터나 양반집 마당, 너른 공터 등 열린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해질녘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판을 벌였다. 관중들은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욕망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신명 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1902년 최초의 관립극장 협률사가 건립되고, 1908년 원각사에서 신극을 선보인 후부터 우후죽순으로 실내극장이 등장했다. 당시의 실내극장은 공연예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보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건물 개념으로 지어졌기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열악했다. 그럼에도 실내극장의 등장은 우리 전통연희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전통극은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프로시니엄 형태의 극장 안으로 이동했다. 판소리가 창극으로 변모한 것처럼 서구의 공연문법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제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의 도구인 공연

법에 의해 공연시간이 밤 12시 이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서사가 왜곡되었다. 우리 전통극의 원형질인 거리의 자유로움은 사라졌다.

공연예술축제와 거리극

우리 공연예술이 다시 거리의 활력을 향수하면서 극장 밖으로 나선 것은 1970년대 마당극 운동을 통해서이다.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자각, 주체적 역사인식에 의한 전통 회복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운동 차원으로 마당극이 등장했다. 하지만 90년대 서구 사회주의의 몰락, 문민정부의 등장 등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변하자 마당극은 급속도로 쇠퇴했다. 마당극이 태생적으로 가진 정치적 때문에 관중과 더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지배적 미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제도의 공간인 극장에서 벗어나 거리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기존의 모든 미학적 형식을 거부하고,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존의 이성과 논리 중심의 미학에 대한 저항이 실험과 도전이란 이름으로 격려되면서 우리 공연예술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미학의 변화에 의해 이제까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리 공간을 실험성과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탈양식화에 대한 지향으로 서구에서 이미 중요한 공연양식으로 자리 잡은 거리극을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이전 시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 조



하이서울페스티벌

성되지 못했거나 삶의 현장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거리’를 수용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거리’는 예술적 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물질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저항담론이 확산되며, 양산되는 지역 공연예술 축제의 콘텐츠가 필요해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적 효용성까지 부각되면서 거리극은 기존 공연예술의 대안으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공연예술축제가 급속도로 양산되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과천한마당축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의정부음악극축제, 안산거리극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춘천인형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등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중앙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문화 수혜 기회를 제 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는 축제 본연의 취지 외에도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더해지면서 경쟁하듯 양산된 것이다. 이 축제들 대부분은 야외에서 공연되는 거리예술축제이고, 실내극 중심 축제도 부대 프로그램으로 꼭 거리극을 포함시킨다. 공연예술축제가 거리극을 공연 콘텐츠로 수용하면서 거리극 발전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제공했다.

연극의 한 양상이면서 문화현상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거리극은 거리 공간에 대한 탐구와 일상 공간의 변형을 시도하는 퍼포먼스에서부터 단순히 공연 공간만을 실외로 이동한 공연에 이르기까지 외연이 매우 넓고, 아직도 실험적 시도와 장르 간

의 혼종이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제도에서 벗어나 탈양식화를 지향하는 공연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리극 수용의 몇 가지 이유

그렇다면 공연예술축제는 왜 거리극을 콘텐츠로 수용했을까? 여기에는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적은 사회비용으로 도심에 문화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이다.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도 크다. ‘광화문 괴물녀’란 선정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을 달구어서 주목받았던 크리에이티브 바키의 〈도시이동연구 혹은 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다〉(이경성 연출)는 광화문이란 도심 공간의 은폐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한 공연이었고, 〈헤테로토피아〉(서현석 연출)는 세운상가 건설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확인케 한 공연이었다. 이러한 공연은 익숙해서 간과하는 일상 공간의 의미를 환기하고,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최소 비용만을 요구한다.



1

둘째, 지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진다. 축제의 기본 목적이 공동체意識의 강화에 있다면 거리극처럼 효과적인 문화 콘텐츠도 없다. 거리극의 관객은 주체적으로 공연을 선택하고, 참여한다.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기에 관객은 자발적으로 관람하거나 지나칠 수 있다. 공연 중간에도 이러한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단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하면 무대와 관객의 경계는 무너지고, 관객 간의 소통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무대 건너편 관객과 정서적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집단체합의 힘은 더욱 커진다. 더구나 관객은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공연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배우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2005년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 초청되었던 극단 알레그로 바르바로(Allegro Barbaro)의 〈관중의 음악회〉는 일상 용품을 활용하여 연주하는 공연인데, 관객이 종이, 비닐을 구기거나 흔들어서 집단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한다. 극단 몸뚱이 〈빨간 구두〉(윤종연 연출)는 40여 명으로 제한된 숫자의 관객이 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을 이동하며, 인간의 욕망에 대해 풍자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이동거리극이다. 이 공연에서 배우와 관객은 구분될 수가 없다. 버스 자체가 공연의 오브제이기 때문에 버스에 타고 있는 관객 역시 외부의 관중이 보기에는 공연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객과 배우, 관객 간의 쌍방향 소통으로 관객은 공연의 주체가 된다.

1.3 과천한미당축제. © park&choi

2 고양호수예술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 고양호수 예술축제



2

셋째, 문화민주주의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문화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반면 경제적 양극화와 중앙·지역 간의 간극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공연예술축제이다. 고급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시대 수작을 초청 공연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시내 중심의 축제가 있는가 하면 관객을 찾아나서는 거리극 축제가 있다. 거리극은 극장에서 관객을 기다리는 대신 거리로 나가서 관객과 직접 부딪친다. 자발적인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부터 거리에 갑작스럽게 등장해 불특정 다수를 의식하며 진행되는 일상 침투형 공연에 이르기까지 양상도 다양하다. 2010년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한 프랑스 극단 일로토피(Illoptopie)의 〈색깔 있는 사람들〉은 원색으로 보드 페인팅한 배우들이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즉흥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행인들과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일상에 투입한 배우들의 퍼포먼스는 삶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한다. 공공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정성을 전사하는 막장극도 없다. 실험적인 전위예술부터 대중성을 내세우는 서커스나 소극 공연에 이르기까지 그 층위도 다양하여 관객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이고, 열린 공간의 자유로움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 없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현실을 놀이로 풀어낸다. 인위적인 극장 공간에서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존 공연과 달리 거리극은 삶과 뜨겁게 재회한다.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을 담아내지 않으면 관객은 쉽게 자리를 떠난다.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사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표현한다. 기존의 공연이 인간 삶의 본질에 천착하면서 진지함을 규범으로 내세워 호모사피엔스(생각하는 인간)의 면모에 집착했다면 거리극은 호모루텐스(놀이하는 인간)로의 귀환을 보여준다. 호이징아에 의하면 진지함은 놀이를 배제하려 하지만 놀이는 진지함을 잘 포섭하기 때문에 놀이 개념이 진지함보다 더 높은 질서 속에 있다. 놀이의 회복은 'Play'였던 연극 원형으로의 회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거리극은 일상 공간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탈일상적이며, 신성화된 공간으로 변하게 한다. 그렇기에 일상 공간에서 현실의 담론을 담아내면서도 놀이성을 확보한다는 데에 거리극의 매력이다.

다섯째, 거리극은 본질적으로 생태적이다. 실내극장의 건설이나 무대 제작을 위해서 필연적인 자연의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자연환경을 가공하지 않고 극적 공간으로 수용할 수 있다.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거리극도 물질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저항담론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극의 본질은 생태적일 수밖에 없다. 친환경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발의 전제였던 과천한미당축제가 거리극축제를 지향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거리극은 친환경적이며 자발적인 관객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도심의 아스팔트 바닥이나 공원의 풀밭 위에 자연스레 앉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을 가지고 공연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 경험은 낯설지만 자극적이다. 극단 여행자의 〈연 - 카르마〉(양정웅 연출)는 인간의 통과 의례인 '탄생-성장-결혼-죽음'의 과정을 한국적 움직임과 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공연은 관악산을 오르며 진행된다. 다리 위에서는 죽음의 의식이, 계곡의 중간 평지에서 혼례의식이, 계곡을 오르며 성장의식이, 계곡에서 탄생의식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작품은 내용에 어울리는 극적 공간을 자연 속에서 찾아가며 공연했다. 자연 공간인 관악산을 '발견 공간(found space)'으로 변화시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간 하지 않아서 자유롭고 틀이 없어 유연한

대표적 거리극축제인 프랑스 살롱축제를 발의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전임 시장 도미니크 페르방(Dominique Perben)은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내게 있어 도시를 다르게 살아내고, 그 거리의 광장을 다시금 발견하며, 대부

분 단순히 스쳐가는 곳을 축제와 만남의 장소로 재평가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거리는 장소나 공간 개념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상징한다. 갇히지 않아서 자유롭고, 정해진 틀이나 틀이 없어서 유연하다. ‘거리’를 “사회적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서, 각 개인이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정의한 마르셀 프레드 폰(Marcel Freydefont)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거리는 소통의 공간이다.

이처럼 거리극은 공공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변하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의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한다. 하지만 거리극은 ‘아마추어다, 거칠다, 미숙하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으로 폄하되거나 비주류 예술분야로 인식되어 ‘낮선 시도’로만 평가되고 있다. 공공지원도 비주류 예술활동으로 규정되는 다원예술의 한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극은 20여 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살롱축제처럼 세계적인 축제에 엘리스 김의 〈쉬크〉(김은숙 연출),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의 〈자화상〉(이철성 연출) 같은 작품이 초청되기 시작했고, 극단 몸뚱이의 〈다시 돌아오다〉(윤종연 연출)와 같은 대형 이동거리극도 공연될 만큼 예술적 수준이나 규모에 있어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고 있다. 거리극은 피상적인 이해와 선입견이 어우러져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관객과 유리된 기존 공연예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거리극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이유이다.



참여,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나눔의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각양각색 매력 탐구

● 공연 예술의 경향 네 가지

복잡다단한 공연예술의 경향을 간단히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한 동네가 아니던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국내외 현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온 필자의 눈에 띄인 두드러진 경향을 늘어놓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사이트 스페시픽(Site-specific)이라고 쓰는 단어 원래의 뜻대로 특정한 장소에 맞춘 특정한 공연을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경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공연이 공연장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과 함께 장소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공연장 바깥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척 다양하다. 그렇지만 공연장이 가지는 안락함, 편안함, 편리함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뒤편에 있는 엄연한 한계를 동시에 피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계는 공간의 물리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와 관객의 관습과 습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경향은 융합이다. 다원이라고도 하고 통섭, 혼종,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는 그것이다. 근대적 장르 구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소들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결합한다. 미술이나 공연예술의 구분도 무의미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결합 요소는 테크놀로지다. 상상하는 한 현실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수준의 기술적 환경이 공연예술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새로운 요소들의 가세로 전통적 방식의 내러티브 등과 같은 공연예술 문법은 뒷방신세이기 일쑤다.

세 번째 경향은 닌버벨 또는 몸에 대한 관심 집중이다. 서커스의 새로운 발견이 우연이 아니다. 언어라는 전통적 소통수단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소통수단이 필요하다. 언어의 자리에 몸과 움직임이 자리한다. 스펙터클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시장의 관점에서 언어가 가장 큰 제약요소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네 번째는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예술의 편익과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차원을 달리하며 심각해진다. 잠정적인 결론 중의 하나는 예술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며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술향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리 예술 축제 - 새로운 경향의 합

이러한 경향들이 가장 잘 모인 것이 거리예술이다. 거리에서이니 말로 내러티브를

- 1 스니프 파렛의 <불 패밀리>.
- 2 굿네이버스의 <모이자마자 굿바이 GOOD-BUY 마켓>.
- 3 하이서울페스티벌 현장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난버벌인 것이다. 말보다는 몸이고 움직임이고 스펙터클이다. 대부분 거리이거나 야외 또는 임시공연장에서 공연한다. 장소 특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공연하는 장소성이 공연의 중요한 한 요소이고 그 장소에 맞는 공연을 한다. 또 당연히 다원적인 포맷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대적 장르 구분에 따른 연극이나 무용, 음악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들의 출신이 무엇이든 거리에서의 공연은 다분히 다원적이다. 보통사람들을 위해 그들 주변에서 공연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 관객과의 거리가 없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거리예술에 관한 한 노하우를 축적한 거리극연구소가 펴낸 2011년 3월호 웹진(제45호)에 거리예술의 특징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미셸 시모노라는 사람이 열거한 것들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재인용해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설득력이 있다.

- 거리는 장소나 공간만이 아니라 맨 먼저 그리고 영원히 정신이다
- 우리는 무엇보다 '관습적인' 공연 속에 있지 않다
- 우리의 작업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양식들의 혼합이다
- 특별한 연기술이 있다
- 우리는 자유로우며, 어떤 제도적인 압박도 거부한다
- 공연 속에서 우리는 이미지로 구현된 일상생활을 바라본다

- 무대 공연자들과 달리 우리는 관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 공연은 관객과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으며, 우리는 그들과 직접 작업한다
- 우리는 군중과 보행자들, 다른 말로, 선택되지 않은 비엘리트 관객과 관계를 맺는다
- 우리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우리의 관객이다
- 우리의 작품은 (장소나 위탁사항 등)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 연대의식은 개인적인 삶과 극단 내 그리고 극단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가치이다
- 우리에게 (연기, 장치제작, 장치세우기, 철거하기 등) 작업의 분리나 역할의 위계질서가 없다
- 우리는 재료와 제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 날씨와 기후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에도 마찬가지다
- 우리는 떠돌아다닐 뿐, 한곳에 갇히지 않는다



거리예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자극한다.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
 때로는 시민이 공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 - 거리예술이 프로그램의 중심인 축제

2011년 5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아홉 번째 축제가 열린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2003년 5월에 처음 시작한 서울의 대표축제다. 600년 도읍지인 서울이 최근 들어 경험한 가장 자극적인 집단 희열 중의 하나로 꼽히는 2002년 월드컵이 축제의 에너지원이다. 계획도, 동원도, 선동도 없이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이 일대 사건은 시민들이 가진 갈증의 한 단면을 폭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다음해 5월, 시민축제를 표방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열렸다.

서울과 같이 거대한 도시에서 도시 전체를 들쭉거리게 하는 축제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자발적인 시민축제를 지향했지만 월드컵과 같은 폭발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여러 번에 걸쳐 포맷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최근의 포맷 전환은 2010년 가을에 열린 제8회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채택한 '넌버벌 퍼포먼스'다. 넌버벌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축제로 변신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이 포맷을 가장 잘 살린 공연형식이 거리예술이다.

거리예술은 기본적으로 좌파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한다. 소수의 기존 예술소비자보다는 다수의 일반 시민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생산과 향유에 진입장벽을 최대한 제거한다. 진입장벽과 접근성의 문제는 기존 공연예술형식이 갖는 한계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예술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거리예술은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장에 갈 필요도 없다.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여하면 되고 돈을 따로 낼 필요도 없다. 정장에 정색하고 근엄하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 거리예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자극한다.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 때로는 시민이 공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거리예술축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거리예술로만 프로그램이 짜인 것이 아니기도 할 뿐 아니라 거리예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축제의 주제는 '넌버벌'이다. 거리예술의 대부분이 넌버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둘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축제의 간판 프로그램의 하나인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와 같은 공연은 거리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거리예술에 한발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해외에서 참여하는 공연 대부분이 도심이나 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리예술이다. 국내 공연 중에도 반 이상이 거리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공연들이다. 이 정도면 내용적으로는 거리예술축제라 할 만하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의 3가지 키워드 01

참여

함께 체험하시겠습니까

축제의 첫 번째 전제는 ‘참여’와 ‘협력’이다. 축제를 운영하는 데 국내외의 축제나 공연단체, 시민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축제나 공연장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공연을 제작하거나 유통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단위의 여러 주체가 모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축제 운영조직만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다.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쌍방향적인 네트워킹을 잘 운영하는 것이 축제를 잘 치르는 데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시민이다. 시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를 굳이 나뉘어 보면 첫 번째는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연예술에서 예술가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관객을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공연이나 축제가 관객과 함께 완성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공연예술축제에서는 관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즐기는 관객은 공연이나 축제의 성공에 빠지지 않는 조건이다.

두 번째는 직접 예술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단순한 관객에서 더 나아가 예술행위를 체험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메인 사이트에 상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축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년에는 타악, 월드 리듬놀이, 줄타기, 버너돌리기, 민속놀이, 탈문화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여의도한강공원 잔디밭에 설치할 〈보헤미안 랩소디〉는 일종의 설치미술로 관객에게 또 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관객이 그 속에 들어가 ‘영혼을 느끼고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작가의 말이다) 설계된 작품이다.

세 번째는 예술가로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관여이며 금년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가장 돋보이는 프로그램 방향 중 하나다. 특별히 이전에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다. 스스로 손들고 나선 시민들은 보통 사전 워크숍을 통해 연습과 훈련을 받은 후 전문 예술가들과 함께 공연하게 된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모양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다. 직접 도구나 인형, 탈 등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서 공연하게 된다. 금년 축제에는 모두 6개의 주요 공연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공연은 하나같이 규모가 크고 장대해서 참여한 시민예술가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예술가로 축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년버벌 오픈 콘테스트’라고 부르는 경연은 아마추어 시민 예술가들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밴드음악과 년버벌 퍼포먼스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콘테스트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예술가로 참여하여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충 다음과 같다.

- 1 프로젝트 시간간의 (풍경2011-천변천변).
- 2 <TOYS 프로젝트>.



1

<레인보우 드롭스>

<레인보우 드롭스>는 금년 축제의 메인 쇼다. 굳이 따지자면 축제 개막과 폐막을 알리는 공연 역할도 한다. 이 공연은 스페인의 세계적인 아외공연집단인 'La Fura dels Baus'와 한국 예술가들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공연이다. 그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등장하는 '인간그물'은 전원 시민 자원자들로 이루어진다. 200톤을 지탱할 수 있는 크레인에 매달리는 54명의 인간그물은 지상 30미터까지 올라간다. 참여자는 공연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신체적 조건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물론 고소공포증이 없어야 한다.

<TOYS 프로젝트>

<그레이트 북>은 도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서울광장에 임시로 설치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벌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도 돋보이는 것이 <TOYS 프로젝트>다. 모두 80명 정도의 일반 자원자들이 같은 의상을 하고 도심을 누빈다. 복제인간들이다.

<지구를 식혀라>

청송에서 작업 중인 나무담 움직임 연구소와 함께하는 대형 인형 퍼레이드공연이다. 축제기간 내내 워크숍을 하고 축제 마지막 날 다 같이 공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시민참여자 100여 명과 전문예술가 20여 명이 같이 한다.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공동체를 생각해볼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고래의 꿈>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노리단의 대형공연이다. 2010년에도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금년에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공연집단 노리단은 폐자재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본으로 한다.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기면서 퍼레이드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풍경 2011-천변천변(川邊千變)>

이 공연에서 말하는 '천'은 청계천이다. 이야기와 역사로 누적된 '지금 여기'를 몸짓과 움직임으로 푼다. 덕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워크숍도 꽤 길고 깊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표현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전문 예술가들도 워크숍을 하면서 팀워크를 맞춘다.

<송노인 풍당면>

최근 화천에 새로 터전을 닦은 공연집단 뛰다와 호주의 대형 인형극단인 스니프 퍼펫이 공동으로 만드는 이동형 공연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새 작품 발굴을 위해 실시한 'NArt in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선정작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2010년에 선정되어 금년에 첫 결실을 보게 된다. 이 공연은 단원들이 돔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이른바 '유목연극'이다. 이 유목민들의 돔에서 워크숍을 하고 나중에 같이 공연에 나서게 된다. 시민들은 코러스 역할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의 3가지 키워드 02

감동과 즐거움 함께 즐기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은 공연예술축제의 성격이 강하다. 공연예술 축제는 무엇보다 재미와 예술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감동이 따르면 더할 나위 없다.

금년 축제는 준비단계에 축제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어려움에서 출발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축제의 정체성의 문제다. 작년 축제는 예외적으로 10월에 개최되었다. 매년 축제가 열리는 봄이 천안함 사태로 연기된 것이다. 봄 축제를 불과 한 달 앞두고였다. 이 때문에 작년 축제가 끝나고 7개월 만에 다음해 축제를 열게 되었다. ‘돈’과 ‘시간’. 뭔가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중 두 가지다(나머지 하나는 ‘사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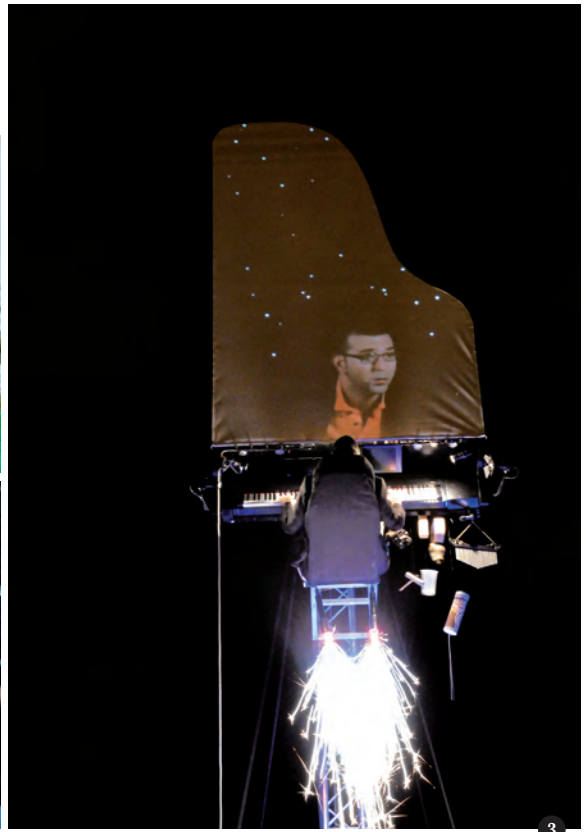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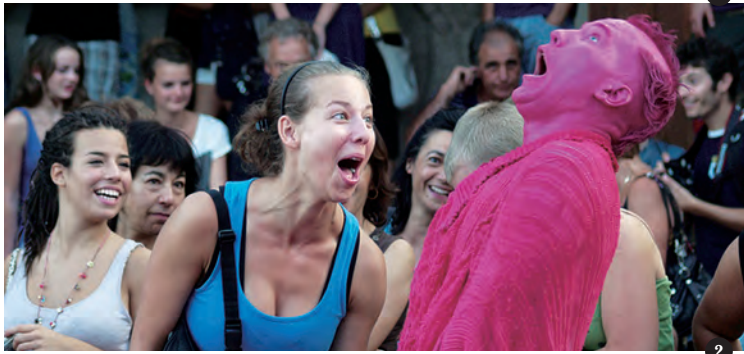
그런데도 미리 본 금년 축제는 한층 나아졌다. 아마도 부족한 ‘돈’과 ‘시간’이 어쩔 수 없는 압축과 간격을 요구했고 그에 응하다 보니 그리 된 모양이다. 그것보다 좀 더 그럴 듯한 이유를 들면 축제의 포맷이 작년과 같아서 작년의 시행착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의도에 ‘빅탑 빌리지’를 짓고

‘넌버벌’을 내세운 첫 해인 작년에는 의욕만큼이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 덕을 금년에 보는 셈이다.

무엇보다 기간이 줄었다. 아흐레나 열흘 하던 축제가 6일로 줄었으니 많이 줄었다. 5월 5일부터 시작하여 10일에 끝나는데 이 기간에 주말을 포함해서 휴일만 4일이다. 소위 징검다리 연휴기간인 셈이다. 기간은 줄었지만 집중도는 강해졌다. 축제 사이트도 줄었다. 작년에 재즈로 특화한 선유도와 폐막 공연을 했던 반포가 제외되었다. 자연히 주요 사이트는 여의도한강공원과 도심으로 좁혀진다.

여의도한강공원에는 작년처럼 빅탑 빌리지가 들어선다. 빌리지 안에는 한층 세련되어진 천막극장이 5개 들어선다. 가장 큰 극장인 축제극장이 1,100석 규모이고 중극장 규모인 넌버벌극장도 700석 규모이다. 개성이 뚜렷한 천막 극장들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축제 마을은 금년 축제의 중심이다. 도심은 청계천과 광화문, 시청 앞 서울광장이 주요 축제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곳이다. 역설적으로 엉뚱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한층 어울릴 만한 곳이기도 하다. 두 곳을 중심으로 금년 축제에서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을 보자.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연들이다.

- 1 말레트의 <풀밭 위의 식사>. © Marie Bernos
- 2 쿠드 류드의 <핑크외계인의 침공>. © Szeget international festival HU
- 3 데이비드 모레노의 <구름 위의 선율>.
- 4 웰(WELL)의 <그레이트 북>. © Rebecca Rutter



3개의 특별 프로그램

금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레인보우 드롭스>(여의도)와 <그레이트 북>(서울광장)이다. 공중연기, 아크로바트, 음악, 불꽃 등이 어울리는 대형 퍼포먼스 <레인보우 드롭스>는 이번 축제에 맞춰 새로 만든 공연이다. 작년에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프랑스의 불꽃 공연단체 그룹F의 아트불꽃쇼가 그랬던 것처럼 관객에게 놀랍고 새로운 관객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주와 연기 대부분에 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한국과 스페인의 음악이 섞인다.

<그레이트 북>은 좀 더 비정형적인 작품이다. 서울광장에 세워질 5미터 높이의 조형물은 하나의 책이다. 축제 다섯째 날부터 축제 마지막 날까지 열흘간 이 책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쏘아낸다. 전시와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퍼레이드 등 다른 장르와 만나고 서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호주인 아트그룹 '웰(WELL)'은 호주, 마카오, 멕시코 등에서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발전시켜왔다. 매년 한 도시씩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금년은 서울이다. 축제기간 중 가장 붐비는 날은 축제 개막일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이다. 이날은 도심과 여의도가 모두 비쁜 날이다. 낮에는 도심에서 세계거리극퍼레이드가 열린다. 밤에는 여의도에서 개막식을 겸한 공연이 열린다. <레인보우 드롭스>다. 세계거리극퍼레이드는 축제에 참가하는 국내외 거리예술 공연단체와 아마추어, 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퍼레이드식 이벤트다. 특별한 봄날이 될 것이다.

년버벌 퍼포먼스 - 서커스

빅탑 빌리지에서 가장 큰 천막극장인 축제극장의 주 장르는 서커스다.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동춘서커스를 비롯해서 캐나다의 '파르페 앙코뉴'(Les Parfaits Inconnus), 하남성기예단 등이 잇달아 공연하게 된다. 청계천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이판(Yi Fan)이 줄을 타고 여의도 아외에서는

우리 전통 줄타기인 '판줄'이 공연된다. 동서양에서 온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탄생은 마찬가지다.

년버벌 퍼포먼스 - 인형극

인형극도 중요한 섹션이다. 축제기간이 가정의 달인 5월의 연휴기간 중이라 어린이가 긴 가족객객이 많을 것을 감안한 프로그래밍이다. 프랑스 극단 말레트의 <풀밭 위의 식사>와 <미니 씨어터> 체코의 인형극단 카로마토의 <목각인형 서커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형극단 현대인형극회의 <인형들의 도시> 등 다양하면서도 수준급인 공연들이 다. 이들 공연은 대부분 '봄짓' 극장에서 공연한다. '봄짓' 극장은 사실상 인형극장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인형극이 다수다.

년버벌 퍼포먼스 - 이동형 퍼포먼스

금년 축제의 중심 콘텐츠다. 실내이든 실외이든 일정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쫓아 여기저기 움직이는 공연이다. <여행자>(그랜드 페르손느), <옥조 안의 세 남자>(인사이트 아트), <봄 패밀리>(스너프 퍼펫), <핑크외계인의 침공>(쿠드 류드), <장난꾸러기 새들>(NWS) 등 해외에서 오는 공연단은 물론 <자구를 식혀라>(나무닭 움직임 연구소), <고래의 꿈>(사회적 기업 노리단), <풍경 2011-천변천변>(川邊千變)(프로젝트 시공간), <송노인 풍당면>(극단 뛰다 외), <퍼레이드 거리극-앨리스>(공작소 365) 등이 모두 이동형 공연이다. 이동형 공연



4

은 거리공연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간편하다. 몸과
운반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관객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
이다.

넌버벌 퍼포먼스 - 공중극

공식적으로 '공중극'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 그
런데도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넌버벌
퍼포먼스 중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적지 않고 임팩
트도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년 축제를 열었던 그룹 F의 아트볼
꽃쇼나 축제를 마무리했던 트랑스 익스프레스의 〈인간 모빌〉이 대표
적이다. 호주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이 하는 모든 공연도 장대 위 공중에
서 이루어진다. 금년에도 〈레인보우 드롭스〉를 비롯하여 데이비드 모
레노의 〈구름 위의 선율〉 등이 봄날 하늘 위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건
물이나 구조물을 타고 다니는 공연들도 유행이다. 〈특수기동대〉(카르
나지 프로덕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넌버벌 퍼포먼스 - 한국 대표 넌버벌

한국에서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 〈넌타〉
를 비롯해서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등이 빠질 수 없다. 시
민들이 열광하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축제가 소중히 여
기지 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서둘러 예약해야 할 공연들이다.



넌버벌 퍼포먼스 - 놀라움

거리예술은 예술을 통해 일상을 뒤집어놓는다. 축제 또한 일상성의
전복 또는 일탈이 핵심 키워드다. 대도시의 짜인 삶과 동선을 뒤집어놓은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롭다. 서울의 광화문은 차도를 막기만 해도 판타지로 바뀐다.
이번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에 특히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이 적지 않다. 플래쉬 몼과 같은 이들 프로그램들은 그 놀라움을 위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넌버벌 퍼포먼스 - 새 작품들

공연예술 유통에 관한 한 축제는 생산보다는 소비의 역할이 크다. 이미 만들어진 공연 중에
서 검증을 통과한 작품을 초청하는 것이다. 변수가 많은 야외축제에 새 작품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새 작품의 창작을 유도하여 콘텐츠 생
산자의 역할을 자임한다.

'NArt in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그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처음 시도하여 모두 5개의 공연 아이다
어를 선정했다. 이들 중 4개가 금년 축제에 첫 선을 보인다. 안은미컴퍼니의 〈렛미세이섬씽〉을
비롯해서 연희집단The광대의 〈홀름 낚시〉, 열혈예술청년단의 〈인어이야기〉, 극단 뛰다가 주도
하는 〈쑹노인 풍당연〉 등이 그 넷이다. 역시 작년에 함께 선정된 연희단거리퍼의 신작은 내년
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작품들은 작년 축제 동안 공개 쇼케이스를 거쳐 선정되어 제작비가 선지원되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준비기간도 길고 비용 마련에도 유리했을 것이다.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 축제가 뛰어나고 혁신적인 작품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월드비전의 <사랑의 동전발>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의 3가지 키워드 03

나눔

함께 착해지시겠습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착한 축제'를 표방한다. 축제가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재미있고 즐거우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실 그렇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간다면 축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한 셈이다. 통계에 의하면 많은 시민이 예술축제나 공연예술을 적극적으로 즐기기에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간과 비용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로부터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소외와는 또 다른 수준의 소외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실내든 야외든 높은 수준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정점다리 연휴기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를 선택한 셈이다. 장소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축제 행사장으로 삼았다. 내용은 시민들이 마음만 열면 쉽게 받아들일 만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보통 시민들이 예술의 즐거움을 흔쾌히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보여줄 나눔의 요체다.

그런데 하이서울페스티벌처럼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작년에도 총 관객수가 180만 명이 넘었다) 축제가 문득 이웃을, 지구를, 환경을 생각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중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눔 캠페인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의 나눔 캠페인은 주로 국내 NGO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기부와 나눔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다. 더욱 적극적인 것은 프로그램에 이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과 예술가를 축제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 연대와 나눔을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다.

연대와 나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나눔 프로그램 단골 파트너는 월드비전, 아름다운가게, 굿네이버스 등이다. 청계천을 따라 형성될 사랑의 동전발은 기부 이벤트로서도 인기가 높다. 국내외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전발'은 축제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 열흘간 계속된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월드비전은 '5월이 되면 세상 모든 동전이 모인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여의도 축제 행사장에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생과 재활용을 주제로 한 나눔 바자회다. 굿네이버스는 <모이자마자 굿바이 GOOD-BUY 마켓>을 같이 한다. 소셜 커머스를 활용해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기부하게 된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공연 중에는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공연을 의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주제가 드러나는 <지구를 식혀라>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공연을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노리단, 재활용연극을 모토로 한 극단 뛰다 등의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몸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런던 템스페스티벌과 함께 '강'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세계의 강'도 그중 하나다. 세계 9개 나라의 청소년들이 강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까지 워크숍과 교차 전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스톡턴 강변 축제, © 김중석

이런 축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세계의 거리예술축제

지난해 난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를 주제로 열린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은 189만 명의 국내 외 관객을 매혹하며 글로벌 공연 예술 축제 대열에 합류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관객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특징 중 하나는, 견고한 공연장 담장 밖으로 나온 인형극, 서커스, 공중극, 미술, 음악, 무용, 마임 등 자유로운 형식의 난버벌 거리공연을 대거 선보인 점이다.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소통하는, 21세기 지구촌 시민들에게 안심맞춤인 거리공연은 세계 곳곳에서 축제의 장을 펼쳐며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영국, 스톡턴 강변 축제

거리예술 발전의 최전선

영국 하면 런던, 에딘버러 혹은 맨체스터를 떠올리는 우리에게, 스톡턴(Stockton)은 들어봤음직하지 않은 낯선 도시다. 스톡턴은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1988년에 시작되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스톡턴 강변 축제(The Stockton International Riverside Festival, SIRF)는 2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영국, 아니 유럽을 대표하는 거리 축제다(영국 내 예술 지원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SIRF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지속적 재정 후원이 확정된 것은 SIRF의 국제적인 위상을 잘 설명해준다). 세계대전 이후 조선업의 몰락으로 점점 기울어가던 스톡턴에서 거리 축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도시의 부족한 문화적 인프라가 야외공간을 활용한 축제의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강변 축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사이트는 티스 강(The River Tees)을 따라 나 있는 강변에 초점이 맞춰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엔 지역의 교회, 광장, 학교,

정원, 하이스트리트 등 도시 곳곳이 공연장소로 변신하여 거리극, 서커스, 댄스, 음악, 불꽃놀이 등 다양한 거리공연의 무대가 된다. 여기에 수천 명의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스톡턴 커뮤니티 카니발(Stockton Community Carnival)은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스톡턴 지역민의 역할은 단지 수동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는데, 8월 초 개최되는 본 축제에 앞서 두 달 동안 예술팀이 학교,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 그룹과 함께 멋진 카니발 의상과 소품을 만들어내는 데 몰두한다. SIRF는 언제나 영국의 거리예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어왔고 2012년 올림픽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 이와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sirf.co.uk



타레가 거리극축제. © 도재형



타레가 거리극축제. © 도재형

스페인, 타레가 거리극축제 혁신적인 작품들과 아트마켓

여름의 끝자락과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 맞물리는 9월 초,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도시 타레가(Tarrega)에선 대규모 거리연극제(Fira Tarrega)가 개최된다. Fira Tarrega는 1981년에 시작된 거리극 중심의 축제로 장소 특정적이며 혁신적인 무대 언어를 구사하는 (전통적인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작품 발굴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Fira Tarrega의 주요 포인트는 '거리예술'과 '비관습적 개념의 공연 장소'로 정리되는데, 축제의 이러한 특색 있는 면모는 스페인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도시자치구의 민주성이 회복됨으로써 대중적인 축제가 발전하고, 거리가 집결의 장소로 재조명되었다. 이와 함께 '거리'에 무게를 둔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단체들 또한 속속 생겨났다(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을 통해 첫 내한을 준비하고 있는 라 푸라 델 바우스(La Fura dels Baus)도 이 시기에 결성된 중요한 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타레가는 중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도시로, 공연과 관객 모두를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데 적합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타레가 시내의 20여 개 공연장소를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에는 세면장, 샤워실, 휴대폰 충전시설을 갖춘 캠프장이 오픈되어 장사진을 이룬다.

Fira Tarrega의 공식 프로그램은 관객을 유혹하고 참가하는 전문가들을 자극하도록 목표된 쇼케이스로 엮인 방대한 컬렉션이다. 관객들의 SMS 투표로 선정되는 최고의 작품에게는 6,000유로(한화 약 9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산 미구엘 어워드(San Miguel Award)가 주어진다. 2007년부터는 거리극 축제와 함께 'Creative Land'라는 슬로건 아래 아트마켓을 동반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엔 스페인, 유럽, 중남미 출신의 프로모터가 대거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다.

www.firatarrega.cat



오리악 국제 거리극축제, © 김조호

프랑스, 오리악 국제 거리극축제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매년 8월이면, 프랑스 중부 강탈(Cantal)의 소도시 오리악(Aurillac)은 작열하는 직사광선을 피해 비강스를 떠온 인파로 북적인다. 도시의 인구 수용 한계치를 훌쩍 넘겨, 전 세계 관광객을 해발 1,000m 높이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조그마한 산간마을로 오도록 유혹하는 주범은, 바로 오리악을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거리극 축제다. 오리악 국제 거리극 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u Theatre de rue d'Aurillac)는 1986년 프랑스 거리극의 선구자인 미셸 크레스팽(Michel Crespin)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공연하고자 하는 극단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축제 기간은 단 4일이지만 400여 극단이 대로변, 광장, 공터, 개인 집 앞마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갖 종류의 공연을 펼치며, 세계 곳곳에서 찾아든 20만 명의 관객이 이를 함께 즐긴다. 자유참가 극단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대부분의 공연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쌈짓돈을 겨냥하기도 한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쌓이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이 밤늦도록 거리에서 함께 연주하고, 춤추며 즐기는 자유로운 모습은 8월의 오리악에서만 볼 수 있는 정감 어린 진풍경이 되었다. 이렇듯 각자각색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리악 국제 거리극 축제는 해를 거듭하며 공연관계자들이 거리극의 흐름을 간파하기 위해 빠뜨리지 않고 찾는 축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어 거리예술의 전시장이 된 오리악의 귀추가 주목받는 이유다. www.aurillac.net



시즈오카 다이도게이 월드컵, © daidogei.com

일본, 시즈오카 다이도게이 월드컵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리예술축제

광활한 후지산 기슭이 펼쳐 있는 시즈오카(Shizuoka)는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일본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매년 11월 다이도게이 월드컵(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을 개최한다. 인구 70만의 시즈오카시는 활기 넘치는 도시를 주도하는 축제를 지향하며 저글링, 판토마임, 마술, 인형극, 브레이크 댄스, 에어리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득한 거리극 월드컵을 개최한다. 다이도게이 월드컵은 일본 및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4일간 펼쳐지는 축제로, 1992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고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객이 찾아든다. 경쟁분야인 월드컵(World Cup) 부문 및 온(On) 부문, 워크 어바웃(Walk About) 부문 그리고 오프(Off) 부문 등 4가지 카테고리 이루어져 있어 나이, 성별, 국적, 프로 또는 아마추어, 개인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누구나 축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www.daidogei.com

Festival Map

5월 축제 즐기기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한강과 도심으로 떠나는
6일간의 축제 여행

일시 | 5월 5일~10일

장소 | 여의도한강공원,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문의 | 02-3290-7160 다산콜센터 120

2011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세계 최정상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향연

일시 | 5월 10일~22일

장소 |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호암아트홀,

예술의전당, 플로팅아일랜드

문의 | 02-712-4879

www.seoulspring.org

2011 청계천축제

예술이 흐르는 청계천

일시 | 5월 1일~10일

장소 | 청계광장, 청계천변

문의 | 02-3290-7160 다산콜센터 120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레인보우 드럼스>

정밀한 공중곡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중
퍼포먼스의 명작.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라 푸라 델 바우스의 이번 서울공연에는
사전에 선발된 용감한 시민들이 참여한다.
일시: 5월 5일 · 8일 · 10일 오후 8시,
7일 오후 9시



재미있고 다양한 더 많은 프로그램과 그에 자세한 설명은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별책을 참조하세요.

일러스트레이션_ 난나 신문과 잡지, 웹사이트에서 국경교과서 및 단행본까지 다양한 일러스트를 모아오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거리를 지도로 그리는 데 새로운 재미 들린 삽화가.



웃음

살금살금 다가왔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새나오기 시작하던 걸요.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은
5월 축제의 하늘을 덮었어요.
웃음은 이렇게 전염되니까요.

글_ 김현경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예술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아티스트를 함께 만나다

나그네

‘뛰다’의 상임연출

다리,

'웰 (WELL)' 의 예술감독



● 한국의 공연창작집단 ‘뫼다’와 호주의 ‘웰(WELL)’. 이들은 커뮤니티 아트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는 ‘설치하고, 머물고, 해체하고, 떠나는’ 과정 한 편이 공연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웰(WELL)’은 서울광장에서 가로 9m, 세로 5m의 책을 설치하고, 그 거대한 책장을 연다. ‘뫼다’는 여의도에서 큼지막한 몽골식 천막을 치고 유목을 하게 된다. 이 공연을 완성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함께하는 ‘시민’이다. 비 내리던 4월의 어느 봄날,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축제 준비에 한창인 ‘웰(WELL)’의 예술감독 다리오 바치카(Dario Vacirca)와 ‘뫼다’의 배요섭 상임연출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예술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다리오 어린 시절,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 프로젝트를 접했었다. 그 작업들은 설치미술과 움직임, 퍼포먼스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공연이었다. 그때부터 공공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작업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 후로 20대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은 글로벌하면서도 지역적인(Local)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지난 수천 년간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친 것, 파괴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동시대 예술이야말로, 이러한 사라짐 혹은 파괴됨 속에서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생각한다.

배요섭 원래 물리학을 공부했었다. 전통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연극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연극을 공부하게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전공은 연출이었다. 배우 중심의 작업을 해왔다. 보통, 연극은 배우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접근하는데, 나는 배우의 몸 너머에서 만날 수 있는 조건들, 이를테면 ‘인형’이나 ‘오브제’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은 ‘음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탐구하고 있다.

프로덕션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리오 나는 프로덕션의 예술감독으로서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사람들, 예술가들, 사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계를 포착하면서, 이들이 다른 각도로 발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실 대단히 멋진 작업이다. 사람들의 잠재력이란 상상을 초월하니까. 결국 예술감독의 역할은 동기화의 씨앗을 심고, 현장에서 감독을 하며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관객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말이다. 대화가 여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배요섭 나는 연출적인 입장에서 배우들과 함께 배우들의 중심에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뫼다’는 배우팀, 연출팀, 기획팀, 교육팀,

● 다리오 Say

‘웰(Well)’ : 스케일과 친밀함

프로젝트의 슬로건 ‘Scale & Intimacy(스케일과 친밀함)’은 우주와 개인을 뜻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이 그 둘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라고 보면 된다. 우리 프로젝트는 대체로 규모가 크다. 보통의 책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우리의 책은 크다(웃음). 스케일과 친밀함의 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열린 장소인 ‘광장’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가까이서 구경만 해도 좋다. 하지만 직접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 많은 친밀감을 얻게 될 테니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종의 심리적 트릭이다. 사람들은 규모가 큰 무언가를 보면 일단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무조건 크기만 하다고 해

서 될 건 아니다. 주변에 수많은 고층빌딩이 나 건축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 보탠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이번 ‘BOOK’ 프로젝트에 집어넣고자 한다. 그건 바로 시민들 ‘자신의 이야기’이다.



미술팀 등 다섯 개의 파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시적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는 만장일치체였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실행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개미사회처럼 하나의 브레인을 형성하는 체제다. 최근에 와서는 만장일치체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지만...(웃음). 우리의 창작 방식은 오픈되어 있다. 서로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작가가 없다. 배우들이 작가이다.

그들이 꿈꾸는 이유

왜 ‘책’인가?

다리오 사실 이야기가 길다.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벽’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책이 가득 찬 공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생과 상상력을 걸고 책을 써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없구나, 하고 말이다. 슬프면서 한편으로 가슴 뭉클한 느

“구성원들이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 항상 문제를 들춰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해소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예술에 접근하게 만든다.”



배요섭 Say

‘뛰다’ : 진화하는 연극, 유목하는 연극, 저항과 치유의 연극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뛰다는 ‘열린 연극’, ‘움직이는 연극’, ‘자연 친화적인 연극’,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다. 그것은 ‘진화하는 연극’, ‘저항과 치유의 연극’, 그리고 ‘유목하는 연극’이다. 연결되는 지점도 있지만, 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다. 보태어 말하자면, 그전에 우리의 작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신화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이제는 그것이 좀 더 현실로 내려왔다고 보면 된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작업으로 옮겨진 셈이다.



깎이었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PC 혹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도 책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특징은 ‘관계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특정 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직접적으로 또 다른 개인의 머릿속에 주입될 수 있는 ‘관계’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책이란 참으로 강력한 미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보르헤스는 “책이란 읽히기 전까지는 단지 죽은 상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책’도 쓰여지기 전까지는 단지 죽은 상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글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글을 쓰면 소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상상력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결국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 혹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이다. ‘지금이 책의 마지막 시대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외침이다. 또 하나는 ‘관계 맺기’이다. 우리는 책이라는 형태를 거대화시켜서 개인과 책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좀 더 많은 사람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번 서울의 주제는 ‘Book of Rising(상승)’이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리오 몇 년 전 멕시코에서 ‘Book of Revolution’이라는 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한국에서 몇몇 예술가와 축제 관계자와 미팅을 갖게 되었다. 난 그때 한국이 처음이었고, 한국의 역사에 관해서도 몰랐다(물론 서울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것은 온갖 장소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대한 쇼핑센터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는

- 1 ‘웰(Well)’의 〈그레이트 북〉, 도심광장 한복판에 솟은 거대한 한 권의 책
- 2 ‘뛰다’의 〈송노인 풍당면〉. 뛰다가 왔다가 놀다가 가는, 사람과 인형 그리고 공동체 퍼포먼스



것도 들었다. 그것은 ‘Rising’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물리적인 모습을 표방하고 있었다. ‘Rising’은 자연의 본질과도 연관이 있다. 땅속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꽃이 되어 태양을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 한편, ‘Rising’은 그와 대비되는 ‘Falling(추락)’ 즉, 중력과도 연관이 있다. 오름은 언제나 내림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결국 ‘Rising’이라는 주제는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왜 ‘유목’인가?

배요섭 실제로 ‘연극’과 같은 것들은 정착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말할길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그게 바로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정신적, 철학적인 의미에서 유목은 우리가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실질적·물리적인 의미에서 유목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면 – 안 오면 망하고, 오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다(웃음) – 유목은 단지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거기’를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야 떠날 수 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유목 연극’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화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사람과 인형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연 혹은 예술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참여를 많이 주저했었다. 수능 끝나고 온 화천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작품을 함께하고, 떠나면서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 자기가 “이것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다. 안 그랬으면 고등학교까지의 삶이 너무 삭막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

〈송노인 풍당면〉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배요섭 작년 12월 호주인형그룹 ‘스너프 퍼펫’이 와서 강원도 화천에서 사람과 인형 프로젝트(PPP: People & Puppet Project)를 했었다. 그때 화천 사람들과 함께 인형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전에 화천에 대해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두 번의 수몰 과정이 있었다. 댐이 한번 생기고 원래 있던 커다란 마을이 수몰되고... 한참 후에 80년대 평화의 댐이 생기고 물이 빠지면서 옛날 마을들이 드러났다. 평화의 댐이 완공되면서 그 마을들이 또다시 물에 잠기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다.

작년, 사람과 인형 프로젝트를 할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너프 퍼펫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겨울 동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킨 작품이 〈송노인 풍당면〉이다. ‘송노인’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화천을 조사하면서 만난 올해로 100세가 되시는 할아버지다. 그분은 두 번 댐이 생기고, 두 번 마을이 잠기는 과정을 다 겪으셨다.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구성된 것이다. 이 이야기로 서울에서 유목연극을 하게 된다. 몽골식 텐트를 하루 동안 짓고 거기서 머물며 공연을 하게 된다.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낚싯대로 낚기도 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웃음)

커뮤니티 아트? 소셜 아트?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작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다리오 협력예술가로 한국의 USD 무용단이 함께한다. 일단 그들과 댄스 비디오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김태훈과도 함께 작업한다. 그 퍼포먼스는 Book 내부에서 보여질 것이다(사실 지금껏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Book을 설치하게 되어서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것 같다). TOYS(Take Off Your Skins) 프로젝트: 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작업도 있는데, 일본 예술가(야스코 쿠로노 Yasuko Kurono)와 USD가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USD가 매우 잘하는 즉흥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게 될 것이고, 점차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유도해낸다. 결국 대규모 단체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배요섭 이번 작품이 화천에서 했던 공연과 다른 점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파트 외에 공연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든 파트가 있다는 점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하게 된다.



“ 커뮤니티 아트는 그것이 선보이는 순간
혹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기능 그
너머에 있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신적 유대감에
관한 것이다. ”

참여자들은 자기가 늙었을 때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 인형을 쓰고 그때 입을 법한 옷을 찾아서 입고 노인이 되어 그 장면에 등장한다. 인형을 놓아두고 참여자들이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이야기하게 해서, 이를 통해 하나의 장면을 만들려고 한다. 어려운 점은 중학교 2~3학년 아이들이 과연 자기 늙었을 때를 생각할까, 하는 점이다. 그래도 그냥 뭐 한번 해보자(웃음). 이번에 처음 생각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자기 삶을 관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때를 상상하는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우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다리오 가끔은 설명하기 쉬울 때도 있지만... 가끔은 답하는 데 신중해질 때가 있다. 커뮤니티 아트는 그것이 선보이는 순간 혹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기능 그 너머에 있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신적 유대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소셜 아트(사회적인 예술, Social Art)라는 용어를 더 좋아한다.

배요섭 보통 커뮤니티 아트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인데 '과연 지금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어찌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생기는 위험성이 있고, 거기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 항상 문제를 들춰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그것을 해소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예술에 접근하게 만든다. 오히려 거꾸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 마치 변화와 해소에 집중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을 보여주고 예술가의 정신적인 세계를 분출하는 식의 예술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정 속에서 일반사람이 예술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를 향한 예술은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체인 대중, 그리고 관객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다리오 나는 특별히 스펙터터(Spect-Actor)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쉽게 말해 관객이 그것이 공연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프로젝트의 모든 주변 사람을 협력자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작가이며 모든 사람은 협력자다. 음... 사실 대중이라는 개념은 매우 어렵다.

무리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생각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 상상 이상으로 말이다.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웃음). 그러나 반대로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공공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과 작업을 하고, 긍정적인 무언가를 파생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배요섭 현재는 대중에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술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일반인의 삶과 예술가의 삶이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아직은 그계서로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사회 안으로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술 작업하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하이스쿨페스티벌을 찾게 될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다리오 와서 즐겨라. 자신에 대해서든 주변 사람 누구에 대해서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와서 즐겨라.

배요섭 도시에 오면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다. 건물들에 둘러싸여 사는 막막한 도시의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축제 기간, 휴식 공간으로 우리 '뛰다'를 사용해주면 좋겠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요섭 연출과 예술감독 다리오는 금세 서로의 공통점을 파악했다. '뛰다'가 서울을 떠나 강원도 화천으로 집단 이주했고, 그곳에서 예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말하자, 다리오는 매우 대단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다리오는 자신의 책이 공동체를 이룩하고, 함께 의식을 치른다는 점에서 '신전'에 비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뛰다' 배우들의 구도자적인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스너프 펫'과 각각 작업한 경력이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다고 경험담을 나누었다. 예술감독 다리오가 중동에서도 책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자, 배요섭 연출은 공연자 방문한 적이 있는 히타이트 지역을 추천해주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며, 여러 문명과 종교가 얹혀 있는 곳으로 터키를 지목했고, 이에 다리오는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시칠리아에서 호주로 이민 온 개인사를 들려주었다.

국내외 젊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시민과 환경, 그리고 예술이라는 화두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에게 자극과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하이스쿨페스티벌이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관계 맺어주고, 서울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반 발짝 미학에 대하여

한국의 북 디자이너 41인 중
주목받는 젊은 북 디자이너

송윤형



흔히 북 커버는 첫인상에 비유된다. 더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들기 위한 출판사들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왔지만, 현란하고 요란한 이미지로 표지를 덧씌우는 작금의 경향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그 와중에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 김훈의 〈공무도하〉, 신경숙의 〈리진〉 등 북 디자이너 송윤형의 표지는, 튀기보다는 그저 조용하고 담담한 매력으로 오히려 매혹적인 첫인상을 만들어낸 예로 손꼽힌다. 그건 디자이너 송윤형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창의력과 개성을 과장하는 대신 북디자인의 역할을 말할 뿐이다. 그녀의 '반 발짝 미학'이 만들어낸 북 디자인, 그 첫 장을 펼쳐봤다.







북디자이너와 같은 말은 ‘장정가(裝幀家)’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책의 겉장, 면지(面紙), 도안, 색채, 싸개 따위를 꾸미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단순히 표지를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디자이너는 책과 어울리는 질감의 종이 선정, 페이지 넘김에 따라 만들어지는 구조와 흐름의 계획, 손아귀에 쥐는 느낌과 펼칠 때 느껴지는 감촉을 고려해 제책과 장정 방식을 관할하는 등, 책이라는 물성 자체를 다루는 계획자에 가깝다. 따라서 북디자이너는 ‘한 사람’의 디자이너에게 적지 않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는 드문 분야이다. 물론 개별 책마다의 성격과 출판사의 취향을 아울러야 하는 절충 과정이 매번 뒤따르지만, 디자이너 고유의 개성과 스타일이 작업에 현현하는 디자인의 다른 예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면에 송윤형은 스스로의 개성과 스타일을 과시하는 디자이너 타입이 아니다. 본인 입으로 ‘짧고 패기 있는 디자이너’, ‘카리스마형 디자이너’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그녀는 〈지금, 한국의 북디자이너 41인〉(프로파간다 펴냄, 2009)이라는 책에 마흔한 번째로 소개된 바 있다. 정병규, 안상수, 서기훈 등 이름만으로 거룩한 ‘선생님’ 디자이너들을 줄줄이 주워섬긴 이 책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누구보다 주목받는 신진 북디자이너로 손꼽히게 된 셈인데 말이다. 치기 어린 시도와 실험에 경도되어야 할 것 같은 이 젊은 디자이너는, 차라리 ‘직장인’ 디자이너가 갖는 한계와 제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 다른 멋진 말 대신 “북디자이너란 그저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라며 한사코 상찬을 마다한다.

북디자이너는 대개 책 자체에 매혹되어 직업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본인도 마찬가지였나?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기업 홍보물이나 브로슈어를 만드는 전문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둘 무렵, 지인의 소개로 ‘작가정신’에 입사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표지를 맡았던 건 아니다. 당시 작가정신은 디자이너가 따로 없이 내부 편집자들이 매킨토시로 본문을 조판하고, 표지 디자인은 외주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북디자인 경험이 일천하니 대표님께서 당연히 믿음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무척 속상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외주를 내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한 표지를 궁여지책으로 내가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를 만에 완성한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토토의 눈물〉이 나의 첫 표지 작업이다. 결과가 흡족했는지 이후 〈다리를 놓으며〉, 〈감각의 박물관〉 등 에세이나 문학 평론집, 인문서 위주로 표지 작업을 했다. 작가정신에서 3년 동안 일한 뒤 문학동네로 옮겨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책의 ‘팬시화’와 더불어 일러스트레이션이 강세인 출판 경향 탓도 있겠지만, 초기작은 아까지한 느낌의 여성적인 표지가 주를 이뤘다. 원래 추구하는 스타일도 그런가?



- 1 김훈 <공무도하>
- 2 신경숙 <리진>
- 3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031, 헤르타 뮐러 <숨그네>
- 4 파울로 코엘료 <브리다>
- 5 김경미 <쉿, 나의 세컨드는>

전혀 아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다만 한 사람의 북디자이너이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는 직업인이다 보니 내 욕심이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책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또한 여성스러운 작업 위주의 발주가 들어왔을 뿐이다. 다행히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많이 벗어난 것 같다. 내가 이래봐도 거친 것 좋아한다(웃음). 단순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사진 사용이 도드라진 표지 작업도 많았다. 이 또한 최근 북디자인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문학동네에 와서 사진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책의 방향이나 주제를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사진은 표지 이미지로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게 스케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정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사진은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측면이 있다. 물론 사진 선택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메시지가 분명한 비주얼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 '컷'을 찾는 게 어렵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일러스트나 사진을 사용한 표지가 더 이상 출판 시장에서 돋보이거나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

순발력으로 방향을 잡고 굳건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으로 <쉿, 나의 세컨드는>을 꼽은 적이 있

다. 지금도 그런가?

<쉿, 나의 세컨드는>이 나왔을 때 시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디자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표지에 내 사진을 이미지로 썼던 과감함이 기억에 남아서 그 책을 꼽았었다. 지금은 신경숙 선생님의 <리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보기에는 무척 평이한 디자인이지만,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문학동네의 모든 디자이너가 매일 하루에 시안 두 개를 만들어야 했을 만큼 무척 공들여 완성한 표지다. 힘들게 작업해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물론 그 상황에서 내 디자인이 선택됐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웃음).

한국 북디자인의 전통은 유서 깊기로 유명하다. 10년 차 '신인' 디자이너로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디자이너는 누구인가?

모든 북디자이너가 내겐 선생님이다. 정병규 선생님의 예전 작업은 지금 봐도 힘이 느껴지고 질리지 않는다. 또한 오진경 실장님의 '흑'이 부럽다. 예전에 아마다 에이미의 <나는 공부를 못해>라는 소설책의 카툰풍 일러스트를 활용한 표지가 매우 신선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

최근에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의 디자인을 맡았다. 전집은 분량이나 부피감 때문인지 출판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번 세계문학전집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

펍권박스, 민음사 등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과 비교해서 차별화가 필요



“특별하게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가 특출 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찾아주는 건, 일을 대하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인 것 같다. 북디자인은 독자와 작가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좋은 역할의 다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했고, 고전부터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포매팅도 쉽지 않았으며, 대중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매력도 중요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출판사 대표님을 비롯해 10여 명 편집위원의 생각이 워낙 다양해서 이를 절충하는 것이 오히려 디자이너의 가장 큰 역할이기 까지 했다. 시안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저런 의견을 조합해서 나름대로 최선책으로 찾은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e북 시장의 강세로 종이 책의 소장성에 가치를 두면서 어느 때보다 북디자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북디자이너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제약이 큰 것 같아서 놀랐다.

일단은 디자인을 할 때 오랜 시간 생각하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작가의 책, 이를테면 코엘료의 <브리다>의 경우도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졌다. 김훈 선생님의 <공무도하>는 이를 만에 완성했다. 게다가 한 가지 일만 진행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10여 개의 책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개 초반에 방향을 굳건히 잡고 가는 편이다. 아쉽지만 어쩔 뻔했, 그게 현실인데.

한 권 한 권, 부디 오래 살아남아라

비단 북디자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마치 슬로건처럼 디자인이 도처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디자이너는 그 중심에서 실종된 사례가 적지 않으니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 사람의 개입이 많아졌고, 그 결과 정작 디자이너의 의견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례로 인터넷 서점이 커지면서 디자인의 틀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다. 컴퓨터상에서 작은 세밀한 이미지로 표지가 보이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제목은 크고 이미지는 강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일러스트나 사진의 사용이 활발해진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출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작비 절감 요구가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지도 쓰고 코팅하지 않은 채 종이 질감을 살린 책이 많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책이 다치거나 장기간 보관 시 변색되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적인 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우 많이 팔리는 책조차 디자인의 제약이 클 정도다. 빨리 찍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 수급이 용이해야 한다면, 제작 단가가 높아지거나 보관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가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디자이너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제약이, 단지 제약에 그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 질감을 위해 미가공 종이를 쓴 표지가 몇 년 지난 후 서점에서 보면 망가지거나 다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내 이기심이었구나’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 ‘상품’으로서 가치를 절저하게 질문하는 것이다. 사실 다 떠나서, 책 한 권 한 권이 모두 내 새끼 같으니까 오래 살아남는 게 북디자이너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

사실 그제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 아닌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색깔을 보여주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많이 보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삽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웃음). 작업을 한참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정이 들어오면 차라리 손에서 놔버리고 다른 시안을 잡을 만큼 열려 있는 작업 방식을 추구한다. 사실 내가, 특별하게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가 특출 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찾아주는 건, 일을 대하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인 것 같다. 북디자인은 독자와 작가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좋은 역할의 다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10년 동안 북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비로소 깨우친 건가?

언젠가 어느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발짝이 아니라 반 발짝만 나아가라”고. 정말 조금만 변화를 주려고 한다. ‘내 것을 보여주는 데 조금 급해하지 말자’, ‘너무 힘주고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미련하게 고집을 부려보기도 했다. 그 뜻이 꺾이면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일을 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이 유연해진 것 같다.

그 10년 동안 유익하게 출산 기간에 잠시 휴직기를 가진 셈인데, 이후 북디자이너로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었나?

예전에는 업무가 많으니까 집에 와서도 시안 걱정, 디자인 고민하고 그랬다. 그런데 고민만 많아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더라. 오래 앉아 있다고 일이 잘되는 건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에 너무 치우쳐 삶의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할까. 이제는 아기가 생기면서 정시에 퇴근해야 하고, 집에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전혀 없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기 덕분에 많이 웃어서 그런지 나 자신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일을 대할 때 이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졌다.

글_ 이상현 디자인문화지 <지콜론 g>의 수석기자다. 디자인을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비주업 아티스트들의 작업실을 들여다보는 책을 준비 중이다.

사진_ 최성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사진+여자?

촬영협조_ 책다방 후마니타스.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극장

나는 경기도민인데, 어째서 '마이 스토리 오브 서울'이라는 원고청탁을 섣뜻 받아들인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서울에 참 자주 나간다. 일주일 중 사흘 정도는 서울에서 불일이 있다. 술도 자주 마시고, 밥도 많이 먹고, 뭘 사기도 많이 산다. 고양시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도 권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사람이 서울에 나가서 돈을 쓰고 다니니 이것 참 혼나야 할 일이지만, 반대로 서울 소속의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니까, 경기도 쪽에서도 이 정도쯤은 눈감아주지 않을까.

광화문 일대, 합정역과 홍익대 부근으로 자주 나간다. 일산에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기도 하지만 사람 만나는 약

속이 많으니 카페 많은 동네로 가는 게 편리하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노트북 켜놓고 일도 할 수 있고,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제부터 서울 시내에 이렇게 카페가 많아진 걸까? 생각해보면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나이 신은 넘은 것 같아 보일 테지만, 대학 시절에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디만, 대학 시절을 주로 서울에서 보냈습디다. 학점은 묻지 마시고요) 대학로의 몇몇 커피숍에 죽치고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글을 썼던 기억이 또렷하다. 갈 만한 커피숍은 정해져 있었다. 뭘 고르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었다.

요즘 카페는 어딜 가나 평균 이상이다. 대형 커피체인점의 커피맛은 참기 힘든 경우가 많고(손님도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작은 카페는 대부분 분위기도 좋고 커피맛도 좋다. 카페의 진화라고 할 만하다. 예전 커피숍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한 가지 기능에 집중했다면, 요즘의 카페는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에 가까워졌다.

카페가 늘어나고 진화하면서 나의 글 쓰기 습관도 변했다. 예전에는 자리가 바뀌면 글을 쓰기 힘들었다. 어쩌나 예민한 분인지 온도와 습도, 책상의 높이나 주변의 정돈 상태 같은 사소한 요소에도 영향을 받곤 했다. 우선 조용해야 하고,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는 클래식이어야 하고, 실내온도가 너무 높아서도 아니 되며, 컴퓨터 바탕화면은 최대한 단순해야 하며, 책상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끝이 없다. 이

렇게 까다로우니 카페에 나가서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카페가 진화하면서 까다롭던 나의 기준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카페라는 장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방에 틀어박혀서 소설을 쓸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카페에서 소설을 써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세 번째 소설집의 테마를 '도시'로 잡았기 때문, 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이유이고 실은 작업실 책상에 앉으면 이상하게 소설은 쓰지 않고 온갖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축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았다.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커피가 너무 맛이 없거나 시끄러운 손님들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 카페를 전전하다 체력이 방전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았다. 홍대와 광화문의 카페를 전전하다 보니 이제는 카페를 고르는 안목도 높아졌다. 오래전 미식잡지를 다닐 때에는 식당의 간판과 메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수준의 맛집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카페의 위치 및 실내 인테리어와 종업원의 표정만으로 대략 어떤 분위기의 카페인지 알 수 있게 됐다.

가장 크게 발전한 것은 카페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다. 예전엔 시끄러운 손님들이 등장하면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거나 무조건 피하고 봤는데 요즘엔 정면승부를 펼친다. 정면승부라고 해서 '저기,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며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듣는다. 듣다 보면 거기에 길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말을 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지, 그런 걸 유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된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투를 쓰고 있는 소설에 옮겨심기도 한다(말투 무단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카페의 대화 속에는 도시의 모든 게 들어 있다.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하기도 한다. 카페는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자 숙적을 음해하는 지하실이며, 고민을 없애는 상담실이기도 하다. 서울의 카페는 그래서 사랑스럽다. 홍익대 근처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24시간 카페에 들른 적이 있다. 술 마신 다음의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에스프레소 한 잔이 간절했다. 카페 2층에 들어서는 순간 내 눈앞으로 진풍경이 펼쳐졌다. 한쪽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이었고, 빈 자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카페가 북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많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와 단어가 사랑스러웠다.

서울에서의 불 일을 마치고 경기도로 돌아올 때면 나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고단하고 고단하다. 하지만 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절대 발길을 끊을 수는 없다. 곧, 나는 서울의 카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온갖 장르가 뒤범벅된 삶의 영화를 시청할 것이다. 욕망과 사랑과 증오와 질투와 체념이 뒤섞여 있는, 그 모든 것이 섞이고 켜고 발효되어 새로운 공기로 바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설을 쓴다는 게 내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오버’스러운 서울의 하루하루

독일 출신 아티스트, 올리버 그림

●
올리버 그림을 만난 곳은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골목을 지나 큰 나무를 품은 넓은 마당을 낀 2층 양옥집이다. 작업실을 겸하고 있는 그 집에는, 여러 용도에 쓰이는 각종 도구로 가득 차 있어, 그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했다. 1964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의 올리버 그림은 90년대 한국을 여행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것을 계기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광고 프로덕션, 영상디자인과 설치미술, 미대 강사 등 15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 아내와 껍짝 놀랄 정도로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서울의 변화를 지켜봤다. 올리버 그림은 서울이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현대와 옛것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서 작품 활동에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말한다.

서울은 언제, 어떤 계기로 왔나?

95년부터 서울에서 쭉 살고 있다. 독일에서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지방을 돌면서 하루 종일 여러 사람을 따라 다녔다. 그들의 일상을 영상에 담았는데, 직업이 다양했다. 무당도 있었고, 평범한 회사원, 가정주부, 헤비메탈 밴드의 일상을 교차편집으로 구성한 영상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한국의 광고 프로덕션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마침 독일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차여서 서울로 오게 되었다.

서울에서 일해보니 어떤가?

처음 서울에 와서 광고 프로덕션 회사에서 일했었다. 정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밤샘 작업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더라. 독일에서는 그렇게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그래서 수당 없이 일하는 낮은 환경이 황당했는데, 한편으론 재미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보광동의 매력은? 외국인도 많아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중이다. 그전에 여러 곳에서 살았다. 처음 산 곳이 분당이었고, 그 후로 양재, 망원, 내수동에서도 살았다. 시민아파트에서 반지하까지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왔다. 보광동은 외국인이 많아서 이사를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많은 동네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나무가 많고,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서울의 옛모습을 간직하

고 있어 좋아한다. 작은 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나무도 많고, 새도 날아다닌다.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전통음악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하는 영상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리듬감이 뛰어난데, 독일의 음악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 영화도 흥미롭다. 이창동 감독의 〈시〉 〈밀양〉,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내 취향이다. 그의 영화는 진짜 드라마 같다. 내 주변의 여성들은 다 싫어하지만 나는 마음에 든다. 한국 음식은 아직 완전히 적응이 되진 않았다. 아직도 빵을 많이 먹는 편이지만, 해물모듬덮밥이나 삼계탕, 김치를 즐긴다.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는 것 같다. 종류도 무척 많다. 하지만 떡볶이는 정말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지방 쪽도 많이 돌아다녀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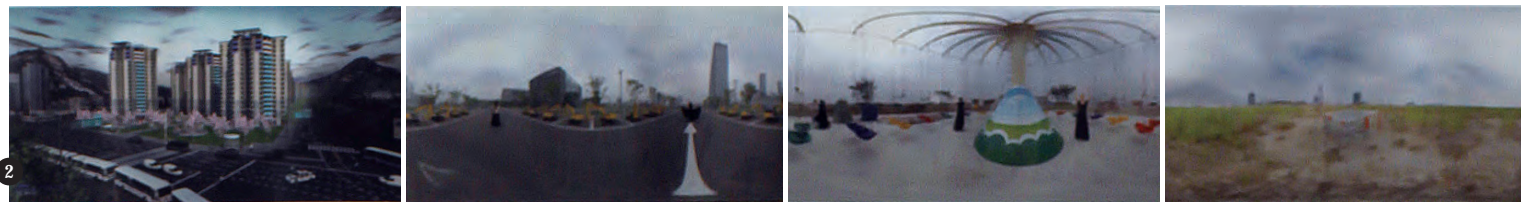
제주도, 강릉, 마산, 광주, 목포, 땅끝 마을까지 갔었다. 한국의 지방은 조용하고 산이 많아서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가지고 있어 좋다. 독일의 경우 농사를 위해서 땅이 계획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이곳의 지방 풍경은 좀 더 자연적인 환경에 가깝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사투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흥미로웠다. 다만 지방에 아파트가 점점 많아져 아쉽다.

아파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한국인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독일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파트에 많이 모여서 산다. 아파트는 자연과 완전히 동떨어진 주거 형태 아닌가? 그곳은 삶의 느낌이 없다. 자연을 느껴야 삶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쁜 산 동네와 오래된 집이 없어지는 게 무척 아쉽다. 독일에서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법적으로 철거를 하면 안 되고, 오래된 건물 형태 그대로 보존한다. 건물 소유주가 없애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독일은 지역 개발을 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고 있다.

아파트 하니 당신의 작품 중 〈로얄블루부동산〉이 떠오른다. 청와대 앞에 아파트 단지를 세워 분양한다는 기발한 발상의 작품이었다.

〈로얄블루부동산〉 작업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 서울에서 오래 사는 동안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런 내 생각을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이다.



1 작업 중인 올리버 그림.
2 올리버 그림의 작품들.

청계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청계천의 모습은?

청계천은 서울만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동네다. 뭔가 엉망인 것 같으면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 나는 청계천에 있는 가게를 돌면서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사곤 했다. 독일에서는 청계천처럼 가게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을 들여 필요한 부품을 사야만 했었다. 청계천은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들었다. 개발이 되고 난 후, 물이 흐르는 곳은 매우 편리하고 좋아졌다. 아직까지는 청계천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삶의 열기가 식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직업인으로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한강에 자주 가는 편이다. 한강의 분위기가 특이하다. 고가도로 위로 자동차가 달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이 무척 생소했다. 특히 한강의 자전거길이 잘 닦여 있어서 인상적이다. 하지만 '오버'스럽다. 1년 전만 해도 운동기구가 놓인 곳의 바닥에 모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모래가 없으면 아이들이 모래를 만질 수가 없다. 모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창의력이 길러지는데 그런 것이 차단되어 버렸다. 다리 위의 카페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너무 크고 화려하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울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곳이다.

언제까지 서울에 있을 것인가?

독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나는 꼭 서울에서 살아갈 것이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내 작업에 많은 영감을 불러넣는다.

「문화+서울」이 주목한 5월의 작품





● **Portable Landscape II n. 11**

1060x1500mm | C-print | 2008

공장건물과 그 뒤로 끊임없이 연기를 뿜어대던 커다란 굴뚝.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워하면서도 경외의 시선을 던진다. 도시의 회색 건물들이 더 정겹게 느껴지게 된 이 시대 풍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이민호(LEE Min Ho)**

성신여대 독일어 전공, 파리 소르본느 1대학 조형예술학 DEA(박사과정)졸업. 2009년 일본 고베 아마키 파인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초록서정**

1000x600mm | 한지 위에 혼합매체 | 2009

...봄날 돌아나는 새순, 나뭇가지마다 울망쭈랑 비집고 올라오는 그 녹색이 마냥 황홀하다. 싱싱함을 느끼게 하는 초록은 안정에 해당한다.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명상과 치유.

● **이해경(LEE Hae Kyung)**

이화여대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17회,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 출품. 강릉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대학원, 서울시립대, 제주대 강사 역임.



2011 서울국제문학회포럼,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작가들의 지적 놀이마당

서울국제문학포럼이 여타의 국제학술대회와 다른 점은, 우선 그것이 학자들의 논문 발표 모임이 아니라, 작가들의 지적 놀이마당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주최측은 세계 각국에서 온 작가들이 서울에 모여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고 교류하며, 글쓰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행사 취지로 정해놓았다. 그러한 취지는 이 모임의 타이틀이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나 콜로키움이 아니라, '포럼'인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의 또 다른 취지는, 한국 작가들과 세계 작가들이 모여, 이 급변하는 계시록적 시대에 작가가 가져야 할 공통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문학의 부인할 수 없는 약점 중의 하나가, 우리만의 관심사에 대한 작품이 많아서 세계 문단의 주목과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태올로지 문학이나 분단문학,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성적 일탈을 다룬 문학은 우리에게만 절실할 수도 있지만, 세계 문단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호

소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작가들도 '또 다른 시각과 지워진 역사의 복원, 절대적 진실에 대한 회의, 독선의 위험과 폐해 성찰,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극복'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 전 인류가 공감하는 보편적 주제에 대한 작품을 쓸 때가 되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의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문학의 해외 홍보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해외 작가와 우리 작가들이 만나 담소하는 교류의 장소를 마련하고 외국 작가들에게 우리 문화와 문학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특성과 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에 열린 제1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의 주제는 '경계를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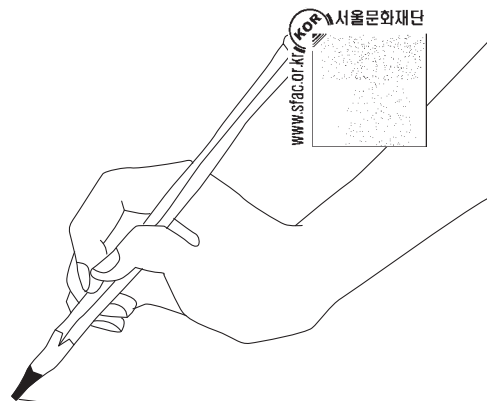


1

어 글쓰기'였는데, 이는 당시 작가들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다문화 세계 속에서의 문학'이라는 부제 아래, 참가 작가들은 급속도로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문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글쓰기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했다. 이때는 나이이지리아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월 소잉카,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영국작가 마거릿 드래블, 미국의 저명시인 개리 스나이더, 일본의 석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등 9개국에서 19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당시 해외 참가 작가들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환담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2005년에 열린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의 주제는 '평화를

- 1 포럼에 참가한 작가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 2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모습.



2

위한 글쓰기'. 지구촌 도처에서 분쟁이 발생하던 시기여서 평화와 화해가 절실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 중국 망명 작가 베이 다오 등 12개국에서 19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행사가 끝난 후, 작가들은 판문점을 방문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평화선언문을 채택해 낭독함으로써, 평화를 기구하는 작가들의 염원을 표출했다. 그러나 동독 출신 작가들은 평화가 공산주의자들의 공허한 표어와 핑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작가들이 도와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작가들,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올해 제3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의 주제는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이다. 전 지구촌이 급속도로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문학과 작가가 수행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이번에도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르 클레지오와 중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작가 가오싱젠이 참가하며, 영국의 계관시인 앤드류 모션, 부커상 수상 작가이자 강력한 노벨상 후보인 나이이지리아의 벤 오크리, 통독 이후의 동독 3세대 대표 작가 잉고 술체,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 양투안 쿵파농, 인도의 저명 평론가 아이미야 데브,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인 잭 로거우, 남미의 미니픽션 작가 아나 마리



1



2



아슈아, 경계를 넘어 독일에서 활동하는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 등 9개국에서 모두 13명의 저명 해외 작가가 참가한다.

한국 측에서는 구효서, 공지영, 김경욱, 김연수, 김인숙, 박범신, 복거일, 성석제, 은희경, 이문열, 이승우, 이인성, 유종호, 정이현, 정지아, 정현중, 조정란, 한강 등 약 25명의 국내 작가가 포럼에 참가한다. 이번 포럼의 소주제는 ‘문화와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자아와 타자, 이데올로기와 문학, 다매체 시대의 세계시장, 글쓰기, 지구환경과 인간’이며, 각 섹션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장점과 문제점, 다문화 시대의 화합과 소통, 탈이념 시대의 문학, 아이패드 시대의 문학과 책의 미래, 시장경제와 글쓰기, 그리고 문학의 생태의식 등을 집중 논의한다.

서울국제문학포럼에 가면 노벨상 받는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의 파급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에 영향력 있는 지한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작가 마거릿 드래블은 포럼 참석 중 〈한중록〉의 영역본을 읽게 되고, 그 책에 감명을 받아 〈한중록〉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는 소설 〈레드 쿤〉을 영국에서 출간해 한국고전문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해 나중에 혼자 한국을 다시 찾은 드래블이 포럼 때 먹었던 비빔밥을 잊지 못해 한식당에 갔는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 “비빔...” 하고 얼버무리자 식당주인이 그만 ‘비빔냉면’을 가져다주었고, 매워서 조금도 먹지 못했다는 일화도 유

명하다. 오에 겐자부로로는 일본 〈아사히 신문〉에 포럼을 소개하는 글을 썼고, 이후 동아시아문학포럼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또 결성하기도 했다. 지한파 작가로 유명한 르 클레지오는 한국이 좋다면서 아예 이화여대 초청교수가 되어 서울에 자주 와서 체류하고 있으며,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를 수상작으로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태 시인인 미국 시인 개리 스나이더는 미국으로 돌아가 생태계의 보고인 DMZ 자연 삼림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고은 시인을 높이 평가해 여기저기 수상자로 추천하고 있다. 오르한 파묵은 터키 일간지 〈사바흐 신문〉에 포럼 참관기를 기고했으며, 이후 한국에도 자주 오고 있다. 불문학자이자 영화평론가이며 전 도쿄대 총장인 하스미 시게히코는 〈니혼 게이지 이자이 신문〉에 포럼 참관기를 게재해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었으며, 모옌 또한 중국의 대표적 지한파가 되어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 문학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자기 나라 지면에 서평을 써주기도 하는데, 이들의 서평이 갖는 파급력은 한국문학의 세계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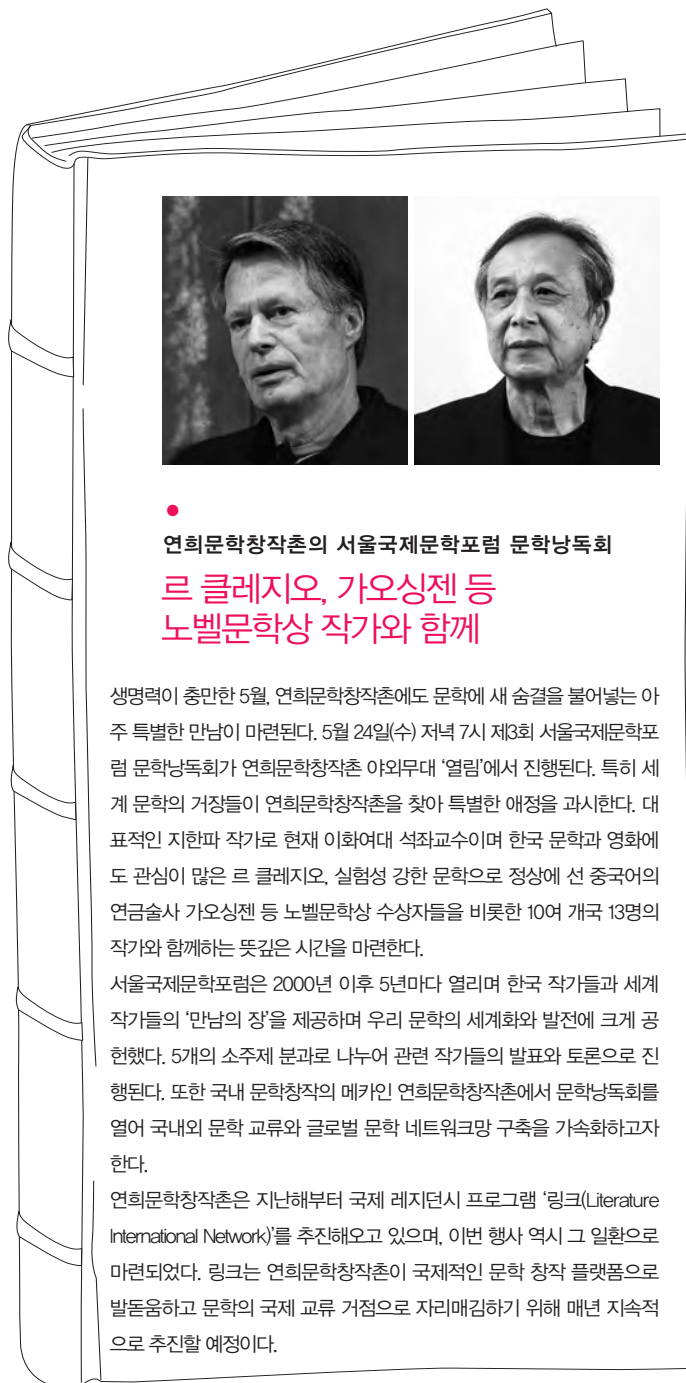
3

대산문화재단은 외국에서 온 작가들을 각 대학과 유관 학회에서 초청해 강연회를 주최하도록 허용한다. 작가들이 어렵게 방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별 행사로 작품 낭송회, 저서 사인회 및 독자와 만나는 기회도 주어져, 참가 작가들의 작품은 행사장에 진열 판매된다. 발표자들의 글은 나중에 모아 국문 및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하도록 되어 있다.

르 클레지오나 오르한 파묵의 경우처럼,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가한 작가들이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세계 작가들 사이에는 한국 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포럼에 가면 노벨상을 받는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고령의 프랑스 지성 피에르 부르디외와 장 보드리야르가 포럼에 다녀간 직후 타계해서, 너무 연로한 상태에서 머나먼 아시아의 끝 서울까지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한다는 농담도 있다고 한다.

한국 문학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자기 나라 지면에 서평을 써주기도 하는데, 이들의 서평이 갖는 파급력은 한국 문학의 세계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

- 1 포럼에 참가한 작가들이 서명을 남기는 모습.
- 2 일본의 노벨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 3 포럼 참가 작가들은 함께 판문점 등을 방문하기도 한다.



연희문학창작촌의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

르 클레지오, 가오싱젠 등 노벨문학상 작가와 함께

생명력이 충분한 5월, 연희문학창작촌에도 문학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마련된다. 5월 24일(수) 저녁 7시 제3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가 연희문학창작촌 아와무대 '열림'에서 진행된다. 특히 세계 문학의 거장들이 연희문학창작촌을 찾아 특별한 애정을 과시한다. 대표적인 지한파 작가로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이며 한국 문학과 영화에도 관심이 많은 르 클레지오, 실험성 강한 문학으로 정상에 선 중국어의 연금술사 가오싱젠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10여 개국 13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2000년 이후 5년마다 열리며 한국 작가들과 세계 작가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우리 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5개의 소주제 분과로 나누어 관련 작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내 문학창작의 메카인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문학낭독회를 열어 국내외 문학 교류와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지난해부터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링크(Literature International Network)'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링크는 연희문학창작촌이 국제적인 문학 창작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 문학의 국제 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극 〈푸르른 날에〉

〈푸르른 날에〉와 〈오월愛〉로 5.18 콘텐츠 돌아보기

기억과 역사 사이

●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 사건이 올해로 31돌을 맞는다. 한 세대를 지나 새로운 또 한 세대가 시작되는 해, 광주민주화운동은 이제 ‘기억과 역사’ 사이를 통과해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올해 5월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명하는 두 작품이 나란히 선을 보일 예정이다. 연극 〈푸르른 날에〉와 다큐멘터리 〈오월愛〉가 그것이다.

〈푸르른 날에〉, 살아남은 자를 위한 진정한 ‘씻김’

〈푸르른 날에〉는 제3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정경진 작가의 희곡을, 작년에 화제를 모았던 연극 〈칼로마베스〉의 연출자 고선웅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각색하고 연출해서 선보이는 작품이다. 그 스타일의 핵심은, ‘21기 신개념 신파극’이라는 이 연극의 자기소개 속에 잘 나타나 있다. 30여 년 전, 전남대를 다니며 야학활동을 하던 오민호와, 전통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정혜는 사랑에 빠진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호는 정혜의 동생 기준과 함께 마지막 도청사수대에 합류하지만, 기준은 죽고 민호는 살아남는다.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자가 된 민호는, 죄의식과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분열을 앓다가, 결국 승려가 된다. 헤어질 당시 정혜는 민호의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었고, 이제 30이 된 그 아이 윤화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30년 만에 재회한 민호(이제 승려가 된 여산)와 정혜는, 과거와 현재,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긴 이야기를 나눈다. 아

직 역사가 되기에는 여전히 현재적인 이 무거운 사건 또는 기억에 다가가는 연극 〈푸르른 날에〉의 접근법은, 일종의 역설적인 ‘거리두기’이다. 연출자는 원작의 인물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 ‘언어와 행동은 더 과장하고 극대화’한다. 때론 비극적인 상황을, ‘더 번거롭게, 심지어 더 유치하게’ 만든다. “역사적 진실은 무대에서 재현될 것이 아니라 재생될 어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항쟁 당시의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진실’을 한 가족사의 비극 안에 응축해놓은 전형적인(또는 ‘신파적인’) 설정,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이제는 ‘통속’이 되어버린 노래 가사와 시구를 빌려 오가는 대화. 놀라운 것은, 이렇듯 ‘신파와 통속’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이 연극이, 끝내는 묵직한 감동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 감동의 비밀은, 이 연극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어설픈 ‘애도’가 아니라 진정한 ‘씻김’이라는 데 있다. 영화 〈꽃잎〉(장선우, 1996)이 한 가녀린 소녀의 몸을 빌려 절절하게 해내려고 했던 그 ‘씻김’의 제의를, 연극 〈푸르른 날에〉는 이제 중년에 이른 한 남자의 몸을 빌려 때론 경쾌하게, 또 때론 초연하게 반복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 연



연극 <푸르른 날에>

극의 '불특정장 공간'은, 그 진심 어린 '씻김'의 제의를 펼치기 위한 최상의 무대가 된다. 언제나 '씻김'은 망자를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살아남은 자'를 위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과 부채의식이라는 '망령'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다. 흔히 '망령'은 과거를 잘못 기억하게 만들기도 한다. '씻기'는 '잊기'와는 다른 것이다. 진정한 '씻기'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저승'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승'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푸르른 날에>는 '진실의 연극'이 아니라 '연극의 진실'을 만들어내려 한다. 때론 경쾌하게, 때론 초연하게 만들어지는 그 '연극의 진실', 이 역설적인 '거리두기'는, 이제 중년이 된 민호와 정혜가 결혼을 앞둔 딸, 즉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일 것이다.

<오월애>,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억'

<오월애>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푸른영상' 김태일 감독의 14번째 작품이자, 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중의 세계'

프로젝트의 문을 여는 첫 작품이다. 80년 5월 광주항쟁이 30돌을 맞는 2010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빛고을' 광주의 진실은 퇴색하고 빛바래가고 있다. 희생자들은 이름을 되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재개발 논리'의 광주판인 '지역 발전'의 명분 아래 추진되는 구 도청별관 철거는, 광주의 부상자와 유족들을, 아니 광주시민 전체를,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 언젠가부터 정부의 주관 아래 진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는, 이제는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항쟁의 당사자들이 입장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곳은 이제, 광주항쟁의 절절한 진실이 담긴 '산자여 따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는, 아주 먼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착잡한 상황 속에서 <오월애>의 카메라가 주목하는 것은, '기록에서 제외된 사람들', 즉 그때 그곳에서 이름 없이 싸웠던 사람들의 '기억'이다.

그때 그곳을 다시 기억하는 일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후회'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기억을 되짚어나가다 보면, 그 모든 기억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소중한 기억 또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찬란했던 어떤 순간에 대한 자긍심이다. '후회'와 '상처'로 시작된 말은, 어느 순간 그때 그곳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름 없는 아주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나르던 세상, '도둑과 강도마저 휴업한 것 같았던 대동 세상', 한 시인은 그것을 '금남로는 사랑이었다'라고 노래했다. 그 깊은 기억과 함께 '기록에서



다큐멘터리 <오월애>



제외된 사람들'의 표정이 빛나는 순간, 그것은 <오월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영화가 80년 5월 광주의 영화적 재현을 시도해왔다. 그 영화들에는 한 가지 징후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그 영화들은 때론 '피해자'로서의 공포 때문에(가령, <꽃잎>), 또 때로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의식과 자기 모멸감 때문에(가령, <박하사탕>), '80년 5월 광주의 10일' 안으로 온전히 들어설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 영화들 속에서 80년 5월 광주는, 토막 난 기억으로, 온전히 재현될 수 없는 트라우마의 형상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그곳은 언제나 '악몽'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한국 영화는 <화려한 휴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10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만, 그것은 한 연인들 또는 가족들 사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영화적 재현의 상투성을 빌려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사실, 그 '사랑'에는 절반의 진실만이 담겨 있다. 80년 5월 광주에서의 '사랑'은, 어느 순간 자기의 가족과 연인에 대한 그것을 훌쩍 넘어섰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휴가>의 광주 시사회에서 한 광주시민은, 영화가 좋기는 했지만, "광주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정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월애>는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 깊은 곳에, 그 '사랑'의 나머지 반쪽을 오롯이 찾아내어 담고 있다.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기억-기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기억-기록'되어야 한다. <오월애>는 그 정당한 '기억-기록'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연극 <푸르른 날>과 영화 <오월애>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두 작품에는 모두 80년 5월 광주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계엄군'이 등장한다. <푸르른 날>에서 주인공 민호 덕에 목숨을 건진 최 중사는 거꾸로 죽을 위기에 처한 민호를 살려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는다. <오월애>에서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 장교의 신분으로 그때 그곳의 진실을 경험한 어떤 이는, 이제 대안학교 교장이 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그때 그곳의 온전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위치에 선 자들을 아우를 만큼, 그렇게 커다란 사랑이었다. 실제로 그때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먹밥을 써서 거리로 나선 이름 없는 아줌마들은, 지쳐서 쉬고 있는 계엄군 병사에게도 기꺼이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다고 전해진다. <푸르른 날>과 <오월애>, 이 두 작품은 우리에게 '80년 5월 광주'를 '커다란 사랑'으로 기억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글_ 변성한 영화평론가로 수유너머N에서 영화와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2008년 인디포럼 프로그래머, 2009년 인디다큐 집행위원을 맡게 된 후,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가고 있다.

남산예술센터 2011시즌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3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

연극

푸르른 날에

오월의 꽃바람 다하도록 죽지 않은 사랑.....

2011. 5. 10-5. 29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출연 김학선, 정재은, 박윤희, 이영석, 이명행, 양영미, 조영규, 최광희, 유병훈, 호산, 이정훈, 김명기, 견민성, 김성현, 손고명, 남슬기, 홍의준, 김영도, 강대진
작 정경진 | 각색·연출 고선웅 | 드라마 터그 김민정 | 무대 이윤수 | 조명 장영섭 | 음악 김태근 | 의상 정경희 | 소품 강민숙 | 분장 김미정 | 조연출 김해리

주최 서울문화재단

신시컴퍼니

제작 남산예술센터

신시컴퍼니

후원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DdM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남산예술센터

www.nsartscenter.or.kr

DdM 연극 푸르른 날에

Festival

세계의 별별축제

Berlin

광기의 도가니 | 크로이츠베르크 노동절 거리축제

일시 _ 4월 30일~5월 1일
장소 _ 크로이츠베르크 지역

독일의 5월 1일은 두 개의 축제가 겹쳐 있다. 노동절 행사와 더불어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알려진 전통적 '5월 춤(Maitanz)'의 날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나오는 발푸르기스의 밤에는 마녀들이 모여 춤을 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지금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아침까지 흥겨운 5월의 춤 축제는 노동절 축제와 시위로 이어진다. 바로 이날 일 년에 딱 한 번 독일 주요 대도시 곳곳에선 혁명 시물레이션이 열린다. 베를린도 4월 30일이면,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거리 무대에서는 흥겨운 록 음악 공연이 열리고, 가판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감돌아 한편으로는 즐겁고 평화롭다. 하지만 축제 거리 바깥을 둘러싼 무장 전투경찰의 모습은 살벌하다.

크로이츠베르크는 통일 이전부터 다문화 공존의 대표 지역이다. 터키, 아랍계 출신을 비롯한 세계 각국 출신의 이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데다 젊은 예술가, 대학생, 대안문화를 지향하는 젊은 펑크족, 극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또 이 지역은 최근 5년 전부터 고급 레스토랑, 카페가 들어서며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고 있는 베를린 대표 '고급 주택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기도 하다.

크로이츠베르크 노동절 폭력시위의 시초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극좌파 단체들이 정부에서 행하는 인구조사를 거부하며 대대적 시위를 벌이던 때다. 노동절 축제가 대규모 폭력시위로 번지면서 밤새 여러 상점과 자동차가 불타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노동절 폭력시위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20년이 넘는 지금은 막연한 '반자본주의'의 구호만 남발될 뿐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은 없다. 극좌파의 치기 어린 난동으로만 치부될 뿐 정치적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다. 그래도 이날은 어김없이 전국의 극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은 대도시의 시위 지역으로 모여든다.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시위가 가장 규모가 크다. 화염병, 최루탄이 난무하며, 매년 부상자와 상점 피해 등 심한 부작용



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폭력시위는 하나의 연례 행사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극좌파 폭력시위대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베를린의 골칫거리가 관광 아이টে이로 자리 잡았다고나 할까.

Montreal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 | 몬트리올 실내악 축제

일시 _ 5월 5~28일
장소 _ 세인트 조지 성당
문의 _ +1 866 842 2112 laplacedesarts.com (티켓 문의) / www.festivalmontreal.org (공연단)

매년 5월 열리는 몬트리올 실내악 축제(Festival Musique de Chambre Montreal)가 이번으로 16회를 맞이한다.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American Public Media) 방송국과 450명의 클래식컬 뮤직 스테이션(Classical Music Station) 멤버들의 지원 속에서 5월 5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이 축제는 클래식 시리즈(Classical Series), 재즈 앤 진(Jazz & Jeans) 그리고 베토벤 음악 시리즈(Beethoven Celebration)의 세 부문의 콘서트로 나뉜다.

캐나다 태생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니스(James Ehnes)의 오프닝 무대로 5월 5일 축제가 시작되는데, 이 공연에는 16살의 피아노 신동 '얀 리치에스키(Jan Lisiecki)'가 함께한다. 클래식 시리즈는 총 8개의 공연으로 구성돼 있는데, 배우 겸 연극감독인 알베르트 밀레어(Albert Millaire)와 다른 세 배우가 참여한 차이코프스키의 '당신을 사랑하오(I Love You)'를 들을 수 있다.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인 'Piano Madness'에서는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한 실력 있는 여러 피아니스트의 뛰어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에서도 알려진 피아니스트 이소연과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랜 댕크(Ran Dank)의 합동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즈 앤 진 시리즈는 총 네 번의 공연으로 되어 있으며 앙드



- 1 크로이츠베르크 노동절 거리축제 모습.
- 2 노동절 거리축제 중 길에서 쉬는 젊은이들.
- 3 데니스 브롯(Denis Broti). 몬트리올 시내악
축제를 만든 사람이다.
- 4 에이코 호소에(细江英公), <bara kei#32>
1961, 디지털 프린트.
© ccdphoto(spring).com
- 5 우인씨엔(吳印咸), 1935呐喊(上海),
디지털 프린트 © ccdphoto(spring).com

레 르루(Andre Leroux)를 포함한 4인조 그룹과 그 외 3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세 시리즈의 콘서트 중 여섯 번 열리는 베토벤 음악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 현악 4중주단, 캐나다의 아피아라(Afiara) 현악 4중주단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키아라(Chiara) 현악 4중주단이 참여하며, 자유, 평등, 박애의 나폴레옹 이념을 지닌 베토벤의 음악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은 '정열적인 러시아인들'(The Passionate Russians)이라는 주제로 장장 4시간 동안 공연이 이루어진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축제는 장소도 바뀌어서 실내악에 적합한 600개의 넓은 좌석을 갖춘 아름다운 성당 내부를 볼 수 있게 된다. 둥근 천장 덕분에 더욱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Beijing

베이징의 새로운 예술구 | 차오창디 포토 페스티벌

일시 4월 23일~5월 31일

장소 베이징 차오창디 예술구 일대(北京 草場地)

문의 www.ccdphotospring.com

올해 제2회를 맞는 차오창디 포토 페스티벌(草地摄影季)이 4월 23일 개막했다. 이 페스티벌은 프랑스 아를 포토 페스티벌과 3년간의 파트너십을 맺고 프랑스 영상관 주최로 ‘중불문화의 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차오창디에 포토센터와 갖고 있는 삼영당(三影堂)에서 행사를 주관하며, 삼영당에서는 페스티벌 개막 주간에 삼영당 사진상의 주인공을 발표한다. 작년의 주인공은 현실 생활의 보통사람을 주제로 사진을 찍는 81년생의 산둥 출신 장샤오(张晓)였다. 올해 본선에 진출한 작가는 천저(陈哲), 치우민에(仇敏业), 추쑤(储楚), 루오단(骆丹), 조우웨이(周伟), 쑤보(资

佰) 등으로 개막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참여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차오창디는 베이징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798이 점차 상업화되는 데 염증을 느낀 몇몇 예술가가 좀 더 베이징 외곽으로 나가 만든 새로운 예술구이다.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국제적 유명세를 떨친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며 파인아트, 갤러리 우를스 말레 등 유명 화랑이 위치해 있다. 페스티벌 개막 주간에는 작가들이 스튜디오 개방 행사를 가지기에 평소 예술가들의 실제 작품 활동에 관심 있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사진 전시회뿐 아니라 작가와의 대담, 전문가 세미나, 음악회, 슬라이드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아를과의 파트너십 덕에 2010년 아를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이 순회 전시되며 차오창디의 크고 작은 스무 개 화랑에서 도 사진 관련 전시회를 가진다.

이 밖에도 일본국제 교류기금에서 후원한 에이코 호소에 의 전시회, 중앙미술학원에서 열리는 '아를, 1998 중국 주제 심포지엄' 등이 개막 주간에 예술 애호가들을 찾아간다. 여섯 번의 전문가 대담이 준비되어 있어 사진 애호가 및 사진과 학생들이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와 전문가와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HP에서 행사를 협찬하여 선발된 100명의 작품은 HP에서 직접 프린트해준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 하나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화창한 봄날에 축제의 거리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

글(베를린) 한주연 9년 전부터 베를린에서 자유기고가로 살면서, 글쓰기와 한글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다.

글(몬트리올) 김선정 2009년 몬트리올에 처음 왔고, 현재 Cegep de St-Laurent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는 미술학도이다.

글(베이징) 손하나 2006년 중국에서 청동기 시대 무덤을 주제로 고고학 석사를 받은 뒤 눌러살고 있다. 현재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Art와 IT를 사랑하는 코즈모폴리탄.

Paris

140년 전, 그 위대한 나날들

코뮌: 1871년, 수도 파리가 일어나다
La Commune: 1871, Paris capitale insurgée

일시 _ 3월 18일~5월 28일
장소 _ 파리 시청
문의 _ www.paris.fr

●
올봄 파리 시청(Hôtel de Ville)에서는 코뮌 드 파리(Commune de Paris, 파리 혁명자치정부)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파리 시민들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접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각종 기록이 전시된다. 자신의 선조들이 좇았던 이상향을 숭고하게 증거하는 이 전시를 보기 위해 파리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매일 긴 줄을 이루고 있다.

1870년,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 3세는 삼촌인 나폴레옹 1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1871년 3월, 파리는 프로이센군에 점령당하고 황제의 내각은 베르사유로 퇴각했다. 그러자 파리의 시민들이 무기를 잡고 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 무산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군은 공동체에 대한 자각과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혁명 의식으로 무장하고 ‘베르사유’로 상징되는 구체제의 유물에 역시 반기를 들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시민에 의한 평등한 사회 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코뮌, 즉 혁명자치정부가 설립되었다. 프로이센과 전쟁을 선포한 1870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빅토르 위고가 ‘가혹한 한 해(L'Année terrible)’라고 표현한 파리 코뮌의 이 1년간은 격렬한 만큼이나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카를 마르크스가 지도하던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제1인터네셔널)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국내의 매체들은 상황을 왜곡했고 코뮌의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이전까지 빵을 만들거



코뮌에 의한 상징물 해체 기록을 보는 관람객들. © 서도은

나 미장기로 일하던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일군과 베르사유군과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코뮌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 세력과도 반목해야 했다. 평등한 자치 사회를 구축하려 노력했으나 이들은 점점 더 도시 안에 고립되었고 결국 정부군에 패배하고 대다수의 코뮌 구성원이 총살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당시 매체에 실렸던 각종 판화와 사진은 이러한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전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독일군이 들이닥친 파리를 묘사하는 판화 등의 코뮌 설립 초기 과정, 각종 노동자 해방 법령을 선포하는 자보(제빵사들의 야간 작업 폐지, 정교 분리 선포 등), 혁명 과정에 해를 입은 문화재(사실주의 화가 쿠르베(Gustave Courbet)가 주도했던 방돔탑 해체 등)에 대한 기록, 코뮌을 주도했던 시민들의 초상 사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파리의 길거리 모습 등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마지막으로 2만 명 가까운 파리 시민이 학살당한 베르사유군의 최후 공습, ‘피의 주간’(Semaine Sanglante)에 대화재에 휩싸인 파리의 모습과 결국 무자비하게 총살되는 혁명군의 사진으로 마무리된다. 파리 시장 베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사회당)는 “기억은 우리의 힘이다. 어두운 밤이 다시 찾아오려 할 때, 우리는 횃불을 켜듯이 위대한 나날들에 불을 붙여야 한다”라고 쓴 빅토르 위고를 인용하며 “코뮌은 이러한 위대한 나날 중 하나이다. 이 전시가 기억의 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한다.



〈리오더〉인스톨레이션. © brooklyn museum

New york

뮤지엄 로비, 예술로 태어나다

리오더(reOrder):
시투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건축적인 환경

일시 _ 2012년 1월 15일까지
장소 _ 200 Eastern Parkway Brooklyn, NY 11238
문의 _ +1 718 638 5000 www.brooklynmuseum.org

● 브루클린 박물관은 이집트의 미라, 이슬람 아트부터 현대 예술 전시까지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이는데, 상설전에서는 옛 유물 관련 전시를, 특별전에서 현대 예술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아트 센터가 박물관 내에 있어 페미니즘 관점에서 기획한 전시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 5월과 7월 사이에는 루이 뷔통과 협업해 이름을 널리 알린 일본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의 회고전을 크게 치르기도 했다.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하는 박물관의 '망장'인 일층 로비 공간을 시투 스튜디오(Situ Studio)에서 새롭게 단장했다. 시투 스튜디오는 2005년 브루클린에 세워진 아트 스튜디오로서 디자인에 패브릭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주로 해왔다. 이번 인스톨레이션의 제목은 〈리오더(reOrder): 시투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건축적인 환경〉이다. '리오더'는 우리말로 하면 다시 배열한다는 뜻 정도 되는데 're'를 소문자로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대적인 재정비가 아니라 환경처럼 녹아들어가는 새로운 배열이다.

얼핏 보면 단순화되어 확대된 버섯이나 우산 같아 보이는 인스톨레이션은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흰색의 천에 투영되어 커다란 스케일을 잠시 잊게 할 정도로 가볍기도 하다. 시투 스튜디오는 박물관 로비가 가진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설계된 브루클린 박물관의 건축도 되짚어보았다고 설명한다. 원래 로비가 뮤지엄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되 친근한 느낌도 함께 주고자 설계되었다.



코리 아칸젤의 〈Beat the Champ〉전이 열리고 있는 바비칸 아트센터의 커브 갤러리. © 엘리엇 와이먼(Eliot Wyman)

London

현대인에 대한 시니컬한 은유

Beat the Champ

일시 _ 2월 10일~5월 22일 / 금~월: 오전 11시~오후 8시

화~수: 오전 11시~오후 6시 / 목: 오전 11시~밤 10시

장소 _ 바비칸 아트센터 내 커브 갤러리

Barbican Centre, Silk Street, London, EC2Y 8DS

문의 _ +020 7638 8891

런던 시내에 위치한 바비칸 아트센터의 커브 갤러리에 들어서면, 잠시 이곳이 오락실이 아닌가 착각할지도 모른다. 이는 현재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코리 아칸젤(Cory Arcangel)의 최신작인 14편의 비디오 볼링 게임이기 때문이다. 뉴욕 브루클린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 아칸젤은 현재 최고의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자신의 최신작을 들고 방문한 커브 갤러리는 원형으로 설계되어, 그의 작품을 한눈에 감

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커브 갤러리의 길고 높은 벽에는 비디오 게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쇠퇴해가는 1977년 ‘아타리’ 모델에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1’과 ‘닌테도’, 2001년 제작된 ‘게임 큐브’ 모델용 볼링 게임의 영상이 프로젝터를 거쳐 흘러나온다. 전시장 한쪽에는 이들 게임의 콘솔과 코리 아칸젤에 의해 변형된 게임 칩이 전시돼 있다.

만약 당신이 코리 아칸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에 의해 변형된 이들 게임에서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도, 결코 게임 속 볼링 핀이 볼링공에 의해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14개의 게임에 등장하는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볼링공을 굴리지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는 나오지 않는다. 코리 아칸젤의 ‘볼링 챔피언십’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점수는 항상 0점이지만, 게임은 계속된다는 점도 보통의 게임들과는 다른 부분이다. 게임 속 플레이어들은 실망하는 다양한 표정과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지만, 이내 다른 플레이어들이 등장해 게임은 지속된다. 커브 갤러리 안에서는 지난 게임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루하리만큼 무한 반복된다.

이번 전시회의 진짜 모미는 하나의 게임이 아닌, 14편의 연속된 게임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 혹은 의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 작품이 전시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갤러리 입구에 전시된 몇 작품 속 볼링 게임은 흑백 화면에 픽셀마저 흐리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게임의 질은 점점 나아진다. 원형 갤러리의 중앙까지 오면, 컬러 화면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픽셀 수도 이전보다 높아져 선명하다. 그럼에도 볼링공은 핀을 맞히지 못한다. 마지막 몇 작품은 3D로 구현돼 마치 볼링장에서 직접 서 있는 듯한 느낌마저 안겨주지만,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이는 기술력의 발전과 정비례하게 풍요로워지지 않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코리 아칸젤의 시니컬한 은유는 아닐까.

글_ 손주연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얼마나 유명인지 확인하고 싶어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 입학했으나, 영화비평을 전공하면서 데미안 허스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청계천축제 2011
Cheonggyecheon Festival

청계천
봄빛예술향연

모
천
회
귀

일시 / 장소 5.1일~5.10화
청계광장, 청계천

프로그램 ● 청계천에 흐르는 설치미술전
● 움직이는 거리예술 세계거리극공연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문의 130 디자인센터

국번없이120
(서울의 지역번호 02-120)

Reader's

「문화+서울」독자사진전

Album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연극 〈살〉을 보러 온 관객

최민호 | 호텔 근무

“서른 살이 되면서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해
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까. 그러던 중 신문에서 이 연극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학로에서 배우 생활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
서 그만두었거든요. 이 연극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했습니다.”





● 금천예술공장 <아티스트 인 스쿨>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

김세윤 |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디자인학과 2학년

“유행은 돌고 돈다고, 엄마의 옛날 옷을 그렸어요. 할머니께서 짜주신 목도리, 그리고 집에 오면 저를 반기는 강아지를 통해 제가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 표현했어요. 오늘 워크숍은 일반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 수업이에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태성소 |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디자인학과 2학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쇼트 커트에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는 숙녀가 되었으니 좀 더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보자는 생각에 처음으로 산 원피스에 대한 기억을 그린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을 때의 느낌을 담아보았어요.”



금천예술공장 해외 입주 예술가 4인

금천^{衿川}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

2009년 10월에 개관한 금천예술공장은 서울시창작공간 중 유일하게 시각 분야 국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창작공간이다. 개관 후 지금까지 전 세계 19개국에서 온 42명의 예술가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이곳에서 작업을 하며 지냈다. 오래된 골목과 디지털 밸리의 첨단 비즈니스가 공존하고, 우(牛)시장의 붉은빛 형광등과 대형 마트의 현수막이 저마다의 색깔로 경쟁하는 곳, 아파트와 공장, 상가가 한데 섞이고 과거와 미래가 한곳에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금천구를 예술적 영감을 주는 아주 특별한 동네라며 열광하는 사람들 - 금천예술공장의 해외 입주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며 지낼까? 현재 금천예술공장에 머물고 있는 6명의 해외 아티스트 중 4명을 만났다.



Interview 01

한국 입양아 출신 네덜란드 예술가 '에리카 블릭만 & 마이 마리 춘 다익스마'

금천에서 '집'을 생각하다

“Everybody knows the meaning of ‘at home’, but we all have our own personal explanation that is difficult to describe in words...”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눈이 반짝인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집’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두 명의 예술가가 예쁜 그림과 설명을 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진 모습이다.

지난 3월 31일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에서는 두 명의 한국 입양아 출신 네덜란드 미술가가 이 학교 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패턴의 집(At Home in Patterns)’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천예술공장이 입주 예술가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티스트 인 스쿨>에 참여한 ‘에리카 블릭만(Erika Blikman · 37)’과 ‘마이 마리 춘 다익스마(Mai-Marie Choon Dijkma · 31)’가 그 주인공이다.

사진과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는 ‘에리카’와 무대의상과 섬유미술을 전공한 ‘마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네덜란드의 가정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성장한 입양아 출신이다. 예술가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서로 ‘입양아’임을 알아봤다는 이들은 같은 처지를 공감하며 교류해오다 마침 금천예술공장의 2011년 해외 입주 예술가로 선정되어 고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인데, 학생들이 무척 관심을 보여서 정말 기쁩니다.”

에리카와 마이는 강의에 이어 디자인 전공 학생 25명과 함께하는 ‘집’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옷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옷에 어린 추억을 바탕으로 ‘집’에 대한 경험과 기억, 환상을 드로잉, 패브릭 콜라주 등 미술작업으로 풀어나가면서 토론하는 이색 워크숍이었다.

에리카는 입양 가서 첫 세례식 때 네덜란드인 할머니가 직접 손뜨개로 떠준 옷과 그 옷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장 따뜻한 옷에 대한 기억이라며 옷을 지었다. 학생들도 직접 오리고 붙이며 표현한 작업을 들고 나와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집과 추억에 대해 생각했노라며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모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참 놀랐어요. 전혀 낯설지 않고 정말 편안한 느낌이 었거든요. 아, 이래서 태어난 땅은 다르구나, 실감했죠.”



현재 네덜란드에는 2,000여 명의 한국인 입양아가 살고 있고, 이 중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예술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가슴에 단 이름표를 보고 서로 입양아 출신임을 알아봤다고 한다.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서양인의 성(姓)을 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1 마이 마리 춘 다익스마의 작업.
- 2 에리카 블릭만의 작업.
- 3 에리카와 마이가 참여한 <아티스트 인 스쿨> '패턴의 집' 워크숍 모습.

금천예술공장에 오기 위해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는 마이는 '모국(母國)'이라는 의미가 더 이상 추상의 그것이 아니라 발을 딛는 순간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차로 두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벨기에에 가도 다른 곳에 왔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데 비행기로 열 시간 넘게 건너온 한국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는 것. 주변의 다른 입양아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못 믿었는데 실제 경험해보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마이는 한국의 모든 것이 처음인 반면, 에리카는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다. 같은 한국인 입양아 출신과 결혼해 남편의 친모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 2004년과 2007년에 전시와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특히 남편의 친모가 직접 사준 구제 재봉틀은 현재 친구 마이의 작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재봉틀 덕분에 새로운 가족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즐거워한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2,000여 명의 한국인 입양아가 살고 있고, 이 중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예술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가슴에 단 이름표를 보고 서로 입양아 출신임을 알아봤다고 한다.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서양인의 성(姓)을 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현재 사진작가이자 설치·미디어 예술가로 로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화·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개인전과 그룹전을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시를 가졌으며 각종 커뮤니티 아트 작업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프로 예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이는 무대의상과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천과 바느질로 작업하는 개인작업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무대의상 모두 재미 있고 의미 있는 일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병행하고 싶다고 한다.

에리카와 마이의 작업은 분야는 다르지만 대부분은 스스로의 양면적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주변과의 관계, 집, 그리고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감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이름이 '서준희'라는 에리카 블릭만(Erika Blikman)은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나 일 년 만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오빠와 남동생을 둔 단란한 가정의 고명딸로 자랐다. '에리카'란 이름은 할머니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찾았다는 뜻에서 '유레카'란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고 한다.

"생김새가 달랐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입양아란 사실을 알았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내 입장에서 참 많이 생각하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한국 이름이 '이춘옥'인 마이 마리 춘 다익스마(Mai-Marie Choon Dijksma)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몇 달 만에 네덜란드로 보내졌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같은 입양아 출신의 한국인 오빠가 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가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신의 이름 중 '춘'의 의미가 '봄'을 뜻한다며 웃는다.

"살던 곳이 암스테르담 주변 소도시라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존재였죠. 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코가 어디에 있느냐 등 외모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상처도 많



이 받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에리카와 마이에게는 입양에 어린 슬픔이나 주눅 든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보다 활발하고 당당하기까지 한 이들의 자부심의 배경은 스스로에게 있었다.

“커가면서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배경이 남다름을 인정하고 나니까 세상을 더욱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 보자기 그리고 공기

에리카는 이미 지난 2월에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주부, 회원 등 여성 7명에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주고 자신의 주변을 촬영하게 했던 것. 이들 작품 중 100장을 모아 동양에서 중요한 개념인 ‘100’의 느낌을 담은 전시를 오는 4월 27일부터 개최하는 금천예술공장 해외작가 국제 교류전 <리.서페이스(re.surface)>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는 금천구의 길거리나 공사장에서 주운 돌 300개를 남대문시장에서 직접 끓은 전통 찌개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금천예술공장 옥상과 발코니에 전시하는 <방 안의 하늘(The Sky in the Room)>이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돌이란 오늘날 서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빌딩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빌딩은 경제발전을 나타내지만 빨라진 속도만큼 버려진 것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자기에 싸인 돌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뜻이다.

“초반에는 제 자신의 입양에 대한 문제를 직접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작업했죠.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중국인’이라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편견이 싫어서 이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나날이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달라지는 나를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에리카는 이번 금천예술공장에서의 작업을 바탕으로 올해 로테르담에서도 전시를 열 계획이다. 마이는 돌아가면 예정된 어린이극 의상 작업을 먼저 하고 <방 안의 하늘> 작업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 한다. 금천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 또 다른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4개월 예정으로 지난 2월 금천예술공장으로 온 에리카와 마이가 이곳에서 작업한 내용은 그들의 웹사이트(<http://home2seoul.wordpress.com>)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서 ‘아리랑’을 슬프게도 또 흥겨운 버전으로도 부르는 모습이 무척 흥미롭다며 한국 사회의 특이한 점을 찾아 눈을 번득이는 이들. 마이가 떡볶이, 라면, 볶음밥, 불고기, 갈비 등 한국 음식을 다 섭렵해본 데 비해 자신은 한국인이 맞나 싶게 아직도 한국 음식이 낯설다는 에리카... 두 입양아 출신 예술가의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살아 있는 금천예술공장 17호 스튜디오는 그들의 마음만큼 밝고 환하다.

금천예술공장의 <아티스트 인 스쿨>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창작 워크숍이다. 참가 문의는 금천예술공장 운영사무실(02-807-4800)로 하면 된다.

Interview 02

서울과 유럽의 도시를 비교하는 남자, 줄리앙 코와네

금천에서 지도를 그리다



금천예술공장 제19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줄리앙 코와네(Julien Coignet · 32)는 지도 그리는 남자다.

스튜디오 벽 한쪽에는 이미 줄리앙이 그린 흑백의 서울 지도 그림이 1개월간의 여백을 남긴 채 뽁뽁하게 채워지고 있다. 지난 3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해 오는 8월까지 이곳에서 작업할 예정인 그는 프랑스 디종에서 주로 활동해온 예술가로, 오랫동안 ‘지도’를 오브제로 하는 독특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유럽의 주요 도시를 찾아다니며 지도를 제작했고, 이미 개인전과 그룹전을 수차례 치르면서 ‘지도 예술’이라는 유니크한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프랑스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미술가 김성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줄리앙은 2003년 첫 한국 방문 이후 2008년에는 서울의 갤러리 스케이프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저는 도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2003년 처음 한국의 도시를 경험했는데 10여 년 동안 서울 풍경도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동안 서울을 여러 차례 둘러보면서 압도적인 고층건물은 곧 확대되는 도시의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브제로서 큰 매력을 느꼈죠.”

지도,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

“지도도 하나의 풍경화라고 생각해요. 고대의 지도를 보면 정

말로 ‘결작(Master Piece)’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죠. 역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요즘은 아무도 직접 지도를 보며 길을 찾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에서는 내비게이션(GPS)과 같이 길을 찾는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널려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비게이션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줄리앙은 자신의 도시 지도 작업은 도시의 풍경을 통해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방식의 하나라고 말한다.

“저의 작업이 실제 지도로 쓰일 수 없겠지만 거미줄 같은 길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겁니다. 지도 작품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연결과 구성 속의 한 가능성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는 금천예술공장 주변의 독산동, 가리봉동을 걸어 다니면서 진짜 서울을 느낀다고 한다. 인사동에서 보여주는 것이 ‘투어용 한국’이라면 자신이 걷는 독산동은 ‘진짜 한국’이라는 것. 관광 한국보다는 진짜 현대 한국에, 전통보다는 현대성에, 지금 여기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곧 자신의 작업이라고 한다.

오는 5월 19일부터 열리는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와 기획전시에서 줄리앙은 그동안 금천예술공장 주변의 독산동과 가리봉동 일대를 작업한 지도와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런던의 지도를 비교전시로 보여줄 예정이다.

금천예술공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으니 일초도 기다리지 않고 “퍼펙트, 노 프라블럼!(Perfect, No Problem!)”이란 대답을 해올 만큼 금천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줄리앙. 유럽에는 레지던시가 주로 시골에 있는 데 비해 금천예술공장은 이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아주 경쟁력이 있다면서 미소 짓는다.

‘도시’와 ‘군대’의 함수관계를 탐구하는 뉴욕커, 애비게일 콜린스

금천에서 삶의 이면을 찾다



뉴욕에서 날아온 스물다섯의 앳된 얼굴을 한 애비게일 콜린스(Abigail Collins · 25)는 외모에서 풍기는 어린 이미지와는 달리 한마디의 질문에도 몇 초씩 심사숙고한 뒤에 조심스레 대답하는 진지하기 그지없는 예술가다.

사진과 비디오, 조각을 이용해 설치작업을 하는 그의 작업에서도 이런 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주로 콘크리트와 목재를 이용한 건축자재를 통해 ‘도시’와 ‘군대’의 함수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는 관심사도 독특하다.

애비게일을 한국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평소 관심 있던 ‘군대 문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전쟁으로 인해 그들을 둘러싼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설치작업을 해왔다는 것.

“한국에서의 작업 재료는 콘크리트와 나무와 같은 건축자재예요. 저는 도시의 빌딩을 만드는 자재가 한국군의 역사와 많은 관계가 있는 서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콘크리트는 일본 식민지와 한국전을 거치면서 콘크리트로 변해가는 한국의 역사를 표현하고, 나무는 치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걸모습만 나무 모양을 한 콘크리트로

된 가짜 나무의자나 나무장판, 나무 무늬 비닐과 같은 가짜 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표면 뒤에 가려진 것들과 그것으로 파생되는 영향에 대해서도요.”

금천은 완벽한 작업조건을 갖춘 공간

애비게일은 아침 7시면 일어나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중에는 주로 용산 미군기지를 찾거나 이태원에서 카투사들과 만나 비디오로 군인들의 일상을 인터뷰하며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군인들과는 주로 일상을 비롯해 자연스러운 인간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시간이 나면 DMZ를 방문해 군사 공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싶다고 한다.

한국에서 미술교사를 하는 친구의 권유로 금천예술공장을 찾았다는 애비게일은 브루클린에서 레지던시의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작업조건을 갖춘 곳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면서 공간 내 아티스트들 간의 대화가 강조되는 곳이라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귀뜸한다. 레지던시가 끝나도 한국에 더 머무르면서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예술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과 대화와 토론이 절실하다는 스물다섯의 애비게일, 그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발표할 ‘서울과 군대 문화’의 명제가 입혀진 작품 앞에서 정작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고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글_한정희 ‘창작공간’에 관해서라면 최고의 정보 제공자가 되고픈, 서울시창작공간의 홍보담당자.

사진_오계록 누긋한 일요일 오전의 커피 한 잔을 꿈꾸며 일주일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진가.

비극을 드라마로 만들기

이달의 예술평론 - 현대화의 한 가능성, 극단 골목길의 〈오이디푸스왕〉



2010년 해화동 1번지 페스티벌 시즌1 <여기가 1번지다>에서 첫선을 보였던 극단 골목길의 <오이디푸스왕>이 2011년 3월 다시 무대에 올랐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박근형은 한 편의 치밀한 ‘현대 드라마(modern drama)’ 속으로 오이디푸스를 소환하여 오이디푸스가 비극적 주인공으로 일그러져가는 과정을 냉철하게 탐색했다. 이는 익숙한 고전 텍스트를 다시 공연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 곧 ‘왜 지금 우리는 <오이디푸스>를 다시 공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박근형의 답이자 그의 고전 해석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연은 박근형의 각색과 무대화에 대한 선택이 매우 탁월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왜 그런가.

고전 비극이 단순히 주인공의 몰락을 다룬 슬픈 이야기일 수 없다는 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타고 선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스의 운명비극이든 셰익스피어의 성격비극이든 아서 밀러의 상황비극이든 비극을 극적으로 구조화하기도, 그것을 관객에게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 초 공연되었던 김민정 각색, 한태숙 연출의 <오이디푸스> 공연이 그러했듯이, 2,500년 전 고전 텍스트의 성실한 무대 재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정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고전 텍스트의 공연이 이처럼 연극 미학적 긴장과 지금, 여기의 문제의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자칫 고전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문 교양 강의용 공연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번 박근형의 <오이디푸스왕>은 진부한 구호에 그치곤 하는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각색과 무대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공연이었다. 박근형은 기본적으로 원작을 충실히 활용하되 비극 오이디푸스를 ‘드라마(drama)’로 풀어내며 좁은 블랙박스형 소극장 안으로 오이디푸스를 불러냈다.

현 대 적 인 인 간 들 의 드 라 마

박근형은 대화를 통해 인간들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드라마의 장르적 규정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오이디푸스>를 각색했다. 신 혹은 우주와의 관계 즉 운명이 아닌,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이디푸스의 고뇌를 끌어내고 그것을 격렬한 대화 장면으로 구성한 점은 이번 <오이디푸스왕> 공연이 현대적인 인간들의 ‘드라마’로 해석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점이다. 이를 통해 오이디푸스는 크레온, 그리고 은둔한 현자로 추앙받는 예언자와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독단 속에 고립시키는 외로운 절대 권력자로 재탄생했다. 절대 권력자 오이디푸스와 그가 휘두르는 절대 권력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크레온과 시민들의 모습은 매우 현대적인 내용으로 공감될 수 있었다.

여기에 과장되지 않고 절제된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 역시 이

이번 <오이디푸스왕> 공연에서 박근형은 소포클레스 원전의 핵심적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오이디푸스를 스팅크스를 처치한 자로서의 명예와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한 자로서의 수치를 동시에 지닌 양가적 인물로 구체화하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번 공연이 세련된 현대적 작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요소로 작용했다. 열정적인 연기를 목소리를 높이고 침이 튀는 격렬한 대사의 발화로 이해할 수 있는 관객에게 꼭꼭 눌러 찾아든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 내면의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이번 공연은 잘 보여주었다. 특히 2010년부터 극단 골목길의 신작 무대에서 비중 있는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주현은 오이디푸스 역을 맡아 오이디푸스의 광기 어린 고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옥타비오 파스에 따르면, 그리스 비극은 “신학(神學)에 대응하는 인간학(人間學)의 탐구”이다. 그들에게 유한자 인간과 무한자 신이 지닌 근본적인 차이는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연사(自然死)에 해당하는 인간적인 죽음을 거부하고 운명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영웅적인 죽음이자 삶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 비극 주인공들의 비범한 성격을, 고통에 찬 운명을 과연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은 남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의심에서 촉발된, 그리스 비극의 비범한 주인공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인간적인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리스 비극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원작에서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아비를 살해하고 어미를 취한다는 운명, 그로부터 발생되는 고통은 21세기 관객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여전히 21세기에도 비극적 주인공으로 공감되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이 운명에 휘둘리는 2,500년 전 그리스인의 것이 아닌 21세기 현대인의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박근형은 때로는 정치적 파트너인 크레온과의 설전을 통해, 때로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와의 뜨거운 애정 장면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운명 뒤에 숨겨진 오이디푸스 내면의 매우 인간적인 충동과 권력에 욕망을 고통스럽게 가시화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장면은 마치 맥베드의 내면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마녀들처럼 음산하게 속삭이는 코러스들을 통해 오이디푸스 내면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욕망을 들려주는 장면이다. 코러스들은 무대 뒤쪽에 설치된 스크린 뒤에 함께 모여 한 몸처럼 스팅크스를 연기하며 “나는 너다.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는 오직 너만이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오이디푸스에게 속삭인다.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몸에 여자의 얼굴을 한 스팅



크스는 테베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시대의 괴물이었다. 욕정 때문에 미소녀를 범했던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벌하기 위해 헤라가 보낸 괴물, 스팅크스는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자를 가차 없이 죽였다. 그런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오이디푸스다. 괴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 역시 괴물이 아니겠는가. 오이디푸스는 세 가지 이질적 존재가 한 몸으로 함께하는 스팅크스처럼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이기도 한 괴물이다. 테베의 시민들은 반신반수인 괴물이 주는 공포를 몰아내고자 결과적으로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인 또 다른 괴물 오이디푸스의 공포 정치를 용인한 것이며 공포를 없앤 대가로 절대 권력자가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절대 권력의 속성을 학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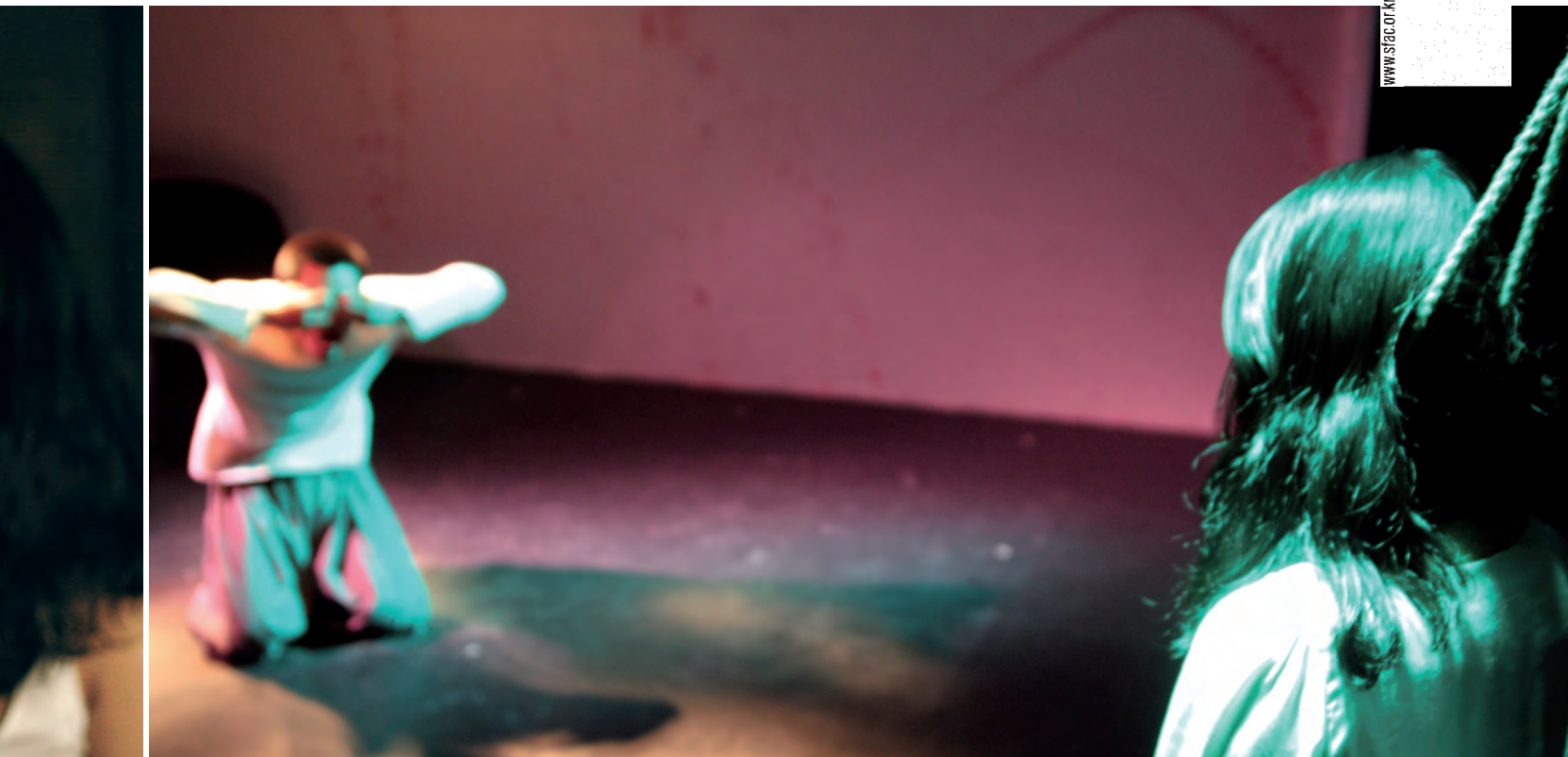
오이디푸스가 누리는 절대 권력은 공포를 통해 얻은 것이고 공포를 통해 지탱된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던 스팅크스를 처치한 대가로 절대 권력을 얻었고,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유일한 자라는 그의 자만심은 스팅크스에 못지않은 공포 정치의 바탕이 된다. 오이디푸스의 공포스러운 절대 권력은 무대 위에서 오이디푸스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자(김영성 역)를 통해서 가시화된다. 그는 오이디푸스의 눈짓만으로 오이디푸스를 대신하여 폭력적 징벌을 가하는 오이디푸스 절대 권력의 가시적 존재다. 권력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앞 못 보는 예언자(이재수 역)를 사자를 이용해 살해하는 장면은 오이디푸스의 공포 정치를 알리는 서

막과도 같았다. 오이디푸스의 광기 어린 폭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자애롭고 현명한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치마폭 속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기대듯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못하는 오이디푸스의 나약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폭군 연산군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장녹수에게 투영하여 희롱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오이디푸스를 양가적 인물로 해석하다

황폐해진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신탁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자신의 불안감을 어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오이디푸스가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권력자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면, 이번 공연에서 박근혜가 의도적으로 그 역할과 비중을 크게 부각한 크레온(김태균 역)은 진실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는 냉정하고 노련한 정치가를 연상시킨다.

폴리스의 권력은 폴리스의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지닌 크레온은 왕으로 대변되는 절대 권력을 의혹에 찬 눈으로 관찰하며 시민들과 그들의 마음을 살핀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바치는 충성은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순간뿐이다. 절대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순간, 충성심도 함께 흔들린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크레온에게는 진실을 밝히려는 오이디푸



스가 불안하기만 하다. 오이디푸스가 밝히려는 진실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열어봐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다. 도대체 오이디푸스가 알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고작 개인의 출생의 비밀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이디푸스가 맹목적으로 진실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번 공연에서는 그 답을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되어 아름다운 왕비를 차지했지만 이방인인 자신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과 비례하여 무한 증식하는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유일한 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만심, 그 사이를 방황하는 절대 권력자 오이디푸스의 내면의 욕망에서 찾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에서 지목한 수치스러운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딛고 있는 절대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를 썼던 기원전 5세기는 바야흐로 영웅의 시대였던 호머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인식과 심리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리스 비극 주인공들은 운명이라는 외적 조건을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의해 판단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그리스 문화가 '죄'의 문화에서 '수치'의 문화로 이동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오이디푸스왕〉 공연에서 박근형은 이와 같은 소포클레스 원전의 핵심적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오이디푸스를 스팅크스를 치치한 자로서의 명예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 자로서의 수치를 동시에 지닌 양가적 인물로 구체화하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곧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다는 자신의 운명을 외부에서 주어진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의 욕망을 반영하여 절대 권력을 뒤흔드는 수치스러운 스캔들로 이해했고,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수치스러운 스캔들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무대 가장 자리의 좁은 공간으로 몰려나가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오이디푸스의 절박함과 고독은 무대 중앙에서 벌어지는, 입을 막고 입을 열게 하는 폭력적인 처벌과 대조를 이룬다. 절대 권력이 맹렬히 그 난폭한 힘을 발휘할수록 그 정점에 선 절대 권력자는 고독하고 외롭다. 이 지점에서 오이디푸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그것은 바로 외롭고 독선적인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자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 글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평론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지원하는 평론가가 '20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론입니다.

Cultural Calendar

5 월 의 재 단 소 식

05



극단마실 - 이오우



극단로얄씨어터 - 129회 정기공연 나도 아내가 있다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연극	오늘 같은 날	대학로 우리극장	5/5(목)~5/10(화)	호모루덴스컴퍼니 02-745-0308
	변태	대학로 정미소극장	5/5(목)~5/22(일)	그룹 동 · 시대 02-3672-3001
	극단 배우세상 정기공연 녹차정원	배우세상 소극장	5/5(목)~6/6(월)	극단배우세상 02-743-2274
	응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5/9(월)~5/15(일)	극단컬티즌 02-3668-0029
	꿈꾸는 거북이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5/10(화)~5/29(일)	극단마실 02-2280-4114
	2011년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 - Why not?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5/11(수)~5/14(토)	극단로얄씨어터 02-760-4877
	하이너빌러 페스티벌 사중주	게릴라극장	5/12(목)~6/5(일)	극단씨실 02-763-1268
	2g의 아킬레스건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또는 정미소	5/25(수)~6/12(일)	극단루트 02-3668-0029
	연변엄마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5/27(금)~6/12(일)	그린피크 02-3668-0029
무용	리움무용단 2011 정기공연 살풀이11	국립국악원 예약당	5/6(금)~5/7(토)	(사)리움춤연구원 02-580-3333
	배꽃춤판 2011 우리 춤, 그 깊은 맛	남산국악당	5/17(화)~5/18(수)	황희연 02-2261-0515
음악	첼리스트 이숙정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역사 여행	호암아트홀	5/1(일)~10/20(목)	이숙정 02-751-9606
	오페라	청계천 파리광장	5/27(금)	사단법인기원오페라단 02-775-3001
	제13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 유레카시리즈V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5/7(토)	빈트리오 02-580-1300
	글로벌코리아 퓨전음악회	서울청계광장	5/29(일)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538-2858
	2011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최정훈)	부암아트홀	5/27(금)	(주)부암아트 02-391-9632
	노부스 콰르텟 the classic	LG아트센터	5/12(목)	노부스 콰르텟 02-6372-3242
	목관5중주를 위한 한국의 현대음악 I, II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5/12(목)	이울로스 목관5중주 02-2203-0483
	백병동 작품전 - 인성에 관한 각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5/18(수)	백병동 02-580-1300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20(금)	(사)서울바로크합주단 02-592-5729
	오페라 시리즈 - 이도메네오와 마탄의 사수(국내초연)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5/22(일)	Ensemble DIAPASON 010-9033-0799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제40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음악의 밤	영산아트홀	5/27(금)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02-875-6765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제78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28(토) 5/29(일)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02-541-2512 전은자 02-580-3333

시각창작활성화지원사업			
김승영개인전	사비나미술관	5/4(수)~6/3(금)	사비나미술관 02-736-4371
패션 주얼리	가나아트스페이스	5/11(수)~5/17(화)	가나아트스페이스 02-734-1333
이수진 개인전 유연한 벽 _The Flex展	통의동보안여관	5/19(목)~6/6(월)	통의동보안여관 02-720-8409

문학창작활성화지원사업				
전시	그 새벽에 온 사람들 II (폐허파) -염상섭 오상순 김억 3인전-	영인문학관	5/7, 5/14, 5/21, 5/28(매주 토)	영인문학관 02-379-3182

다원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Sound Cityscape5 도시를 연주하다	리버뷰8번가	5/20(금)~10/12(수)	리버뷰8번가 02-476-0722
란의 일기	문래예술공장 박스시어터	5/22(일)~5/24(화)	창작집단 셀러드 02-2676-4300

우수예술축제지원사업			
2011 100페스티벌 - 다문화, 소통 그리고 열린 사회	대학로 동송무대 소극장 / 대학로 우석레퍼토리 극장	5/31(화)~6/26(일)	100연극공동체 02-744-5879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서울열린극장창동				
공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서울열린극장 창동	5/13(금) 19시30분 전석 10,000원 (※취학아동 이상 입장가능)	02-994-1469 www.soc.or.kr
남산예술센터				
공연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5/10(화)~5/29(일)	02-758-2120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신진작가 지원 사업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다목적공간	5/4(수)~5/29(일)	02-333-0246
금천예술공장				
기획전시	금천예술공장 해외작가 국제교류전 〈리.서페이스 re.surface〉	금천예술공장 P.S 333	4/27(수)~5/5(목)	02-807-4120
	2011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	금천예술공장 전역	5/19(목)~6/8(수)	02-807-4120
기획 프로그램	Artist in school 아티스트 인 스쿨	금천예술공장 워크숍룸, 해당 학교교실	5/4(수)~5/25(수)(총4회)	02-807-4135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 예술가 개별스튜디오	5/12(목)	02-807-4135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	입주작가 2인展 〈Different Stories〉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실	5/21(토)~5/28(토)	02-2232-8833
연희문화창작촌				
	제3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	연희문화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5/24(수) 오후 7시	02-324-4600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도시문학콘서트	연희문화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5/28(토) 오후 7시	02-324-4600
문래예술공장				
프로그램	문래예술공장 시민문화 향유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 1기	문래예술공장 녹음실	3/30~6/1 (매주 화 · 수)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전시	171 입주단체 D.A.P. 아트워크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_맺음	5/22~5/28 (오전 10시~오후 6시)	02-943-9300
프로그램	성북, 신나는 놀토체험	성북예술창작센터 각 스튜디오	5/14, 5/28, 6/11 (토, 오후 1~5시)	02-943-9300
	[공연] 무한 작곡가의 밤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페이스 _나눔	5/14(토) 오후 3시	02-943-9300
	[미술치료] 직장인 _굿바이 스트레스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4	5/2, 5/16, 5/23 (월, 오후 7시~10시)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챔스틱 〈두드리는 클래식〉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발'	5/9(목)~5/10(화)	02-871-7400
전시	시각 영역_전문디자이너와 함께하는 7주간 디자인체험 결과를 전시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발', '썩' 외	5/5(목)~5/15(일)	02-871-7400
흥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흥은예술창작센터	4/21~6/2 (매주 목, 오후 2~6시)	02-304-9100
개관식	흥은예술창작센터 개관식	흥은예술창작센터	5/11(수) 오후 3시	02-304-9100



공연창작활성화 - 호모루텐스컴퍼니



공연창작활성화 - 극단배우세상



공연창작활성화 - 노부스파르렛



공연창작활성화 - Ensemble DIAPASON



아리랑팔하모닉오케스트라



다원예술창작활성화 - 이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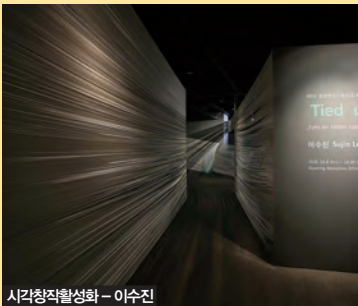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다원예술창작활성화 - 스페이스맨홀세이



다원예술창작활성화 - 창작집단발러드 - SalShow



사각창작활성화 - 이수진



시민축제 - 시민법인 사람과마을

책 읽는 서울 - 책, 음악과 만나다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송파랑 오월이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5/12(목)~5/26(목) 02-423-6674	

책 읽는 서울 '책으로 만나다'				
프로그램	책, 세상과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5/17(화) 오후 7시 30분	02-3290-7162
	책, 영화와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5/24(화) 오후 7시 31분	02-3290-7162
	책, 음악과 만나다	서울연극센터	5/31(화) 오후 7시 32분	02-3290-7162

2011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공연	Liszt Evening 리스트의 밤	플로팅아일랜드	5/10(화) 오후 6시 30분	02-712-4879
	Opening Concert : Pianist-Composers 피아니스트-작곡가들	세종체임버홀	5/11(수) 오후 7시 30분	02-712-4879
	Quintessence 오감(五感)	세종체임버홀	5/12(목) 오후 7시 30분	02-712-4879
	Paris Story 파리 스토리	세종체임버홀	5/13(금) 오후 7시 30분	02-712-4879
	Habsburg Empire	세종체임버홀	5/14(토) 오후 4시	02-712-4879
	함스부르크 제국			
	Music, Dance & Pianists	예술의 전당	5/14(토) 오후 8시	02-712-4879
	음악, 무용 그리고 피아니스트들			
	Avodah Trio 아보다 트리오	호암아트홀	5/15(일) 오후 7시 30분	02-712-4879
	Palace Concert 고궁 음악회	덕수궁	5/15(일) 오후 6시 30분	02-712-4879
	Lisztomania 리스트 매니아 (*리스트매니아)	호암아트홀	5/16(월) 오후 7시 30분	02-712-4879
	Piano non Troppo	세종체임버홀	5/17(화) 오후 7시 30분	02-712-4879
	피아노는 적당히...			
	Aimez-vous Brahms?	세종체임버홀	5/18(수) 오후 7시 30분	02-712-4879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Anglo-American Connection	세종체임버홀	5/19(목) 오후 7시 30분	02-712-4879
	영-미 커넥션			
	Keyboard Variations	세종체임버홀	5/20(금) 오후 7시 30분	02-712-4879
	건반의 변주			
	Chamber Music Symphony	세종체임버홀	5/21(토) 오후 4시	02-712-4879
	실내악 심포니			
	Walhalla Temple 발할라 전당	세종체임버홀	5/21(토) 오후 7시 30분	02-712-4879
	Elegy 비가	세종체임버홀	5/22(일) 오후 4시	02-712-4879
	Finale Concert : Appassionata	세종체임버홀	5/22(일) 오후 7시 30분	02-712-4879
	폐막공연 : 열정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전시	공공예술프로젝트 '미디어아트, 일상이되다'	가든파이프	4/15(금)~7/31(일) 02-2157-8770~1	
	기획전시 <아트캐슬展>	LIFE-WORKS 연결통로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4/15(금)~5/26(일)	02-2157-8770~1	
체험 · 교육	가든아띠스쿨 '나의 성을 지어요'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4/16~5/26 (매주 토 · 일)	02-2157-8770~1	
교육	문화술프로젝트강연 <한성필 작가>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5/4(수)	02-2157-8770~1	
공연	가든5페스티벌(거리극)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5/5(목)~15(일) 02-2157-8769, 8775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가든파이프 아트홀	5/6(금)~26(목) 02-501-7888	
프로그램	가든아트마켓	가든파이프 옥상정원 (테크노관)	5/21(토) 02-2157-8770~1	

S F A C N e w s

5 월 의 재 단 소 식

05



서울예술실험센터 〈서교동 하늘공작소〉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년 봄 시민대상 상설프로그램

옥상에서 만나는 〈서교동 하늘공작소〉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11년 봄 시민대상 상설프로그램으로 센터 옥상 공방을 개방하는 〈서교동 하늘공작소〉를 운영한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동안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누구나 집안의 고장 나거나 수리할 물건을 가져와 센터의 공구를 이용, 수리할 수 있다. 예술단체 '짜임(zzaim)'이 공구사용법을 안내하며 작업을 도와준다.

〈서교동 하늘공작소〉

전시기간 4.15(금)~6.30(목) 매주 금·토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전시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공방

전시문의 02-333-0246



서교예술실험센터 신진작가 지원사업
신지현, Bosom, 2009, Oil on canvas, 145.5X97cm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박능생 작가 스튜디오 전경



연희문학창작촌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신진작가 지원사업

서교예술실험센터

〈Nan Saranameelgeoya 난 살아남을 거야〉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는 갓 미대를 졸업하고 본격 프로 예술가의 길을 준비하는 3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진작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그룹 전시 〈난 살아남을 거야〉로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전시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도 진행하여 전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기반을 예술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전시의 취지이다. 참여 작가는 노경미, 김효숙, 최다칠, 신지현, 이주리 등을 포함한 약 15명이며, 5월 4일부터 29일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과 지하 다목적 공간에서 전시된다.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2011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개최

6개국 20명 입주 예술가들의 스튜디오가 열린다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을 진행한다. 총 19개의 입주 예술가 스튜디오를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하여 전 세계 작가와 작품을 직접 만나게 하는 〈오픈스튜디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고, 기획전시 〈이 도시의 사회적 상상력〉은 5월 19일부터 6월 8일 3주간은 PS333(전시장)과 창고동 작업실(공동작업실), 옥상, 카페테리아, 주차장, 복도 등 금천예술공장 전역에서 열린다.

한편 5월 19일 오프닝에는 '한 공장 한 그림 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주 예술가 김정옥이 1,100여 개의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독산동 일대의 공장 내부를 스케치한 작품을 기업주에게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또 이번 전시에는 금천예술공장의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지역

의 주부 커뮤니티 소속 9명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 전시설명 및 안내를 할 예정이라 지역 속의 금천예술공장의 역할과 입지를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입주 예술가 19팀의 5분 프레젠테이션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가 될 것이다.

전시안내

전시기간	오픈스튜디오 5.19(목)~22(일) 총 4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기획전시	5.19(목)~6.8(수) 총 2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장소	금천예술공장 PS333
문의	02-807-4120

연희문학창작촌, 세계문학의 사랑방으로 거듭난다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도시문학콘서트〉 잇달아 개최

봄기운이 무르익어가는 5월,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마련된다. 5월 24일(수) 저녁 7시에는 제3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문학낭독회가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진행된다. 프랑스 문단의 살아 있는 신화르 클레지오, 실험성 강한 문학으로 정상에 선 중국어의 연금술사 가오싱젠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전 영국 계관시인 앤드류 모션 등 10여 개국의 대표 작가·평론가들이 연희문학창작촌을 찾아 한국 독자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연희문학창작촌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링크(Literature International Network)'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달에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되는 '연희문학낭독극장'을 대신한다.

한편 5월 28일(토) 오후 7시에는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도시문학콘서트〉를 마련한다.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호주 작가 배리 힐(Barry Hill), 아이비 알바레즈(Ivy Alvarez), 테리 잔시(Terry Jeansch), 니콜라스 로우(Nicholas Low), 데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 신나는 놀토 체험>



성북예술창작센터 <무한 작곡가의 밤>

이비드 프래터(David Prater)가 방한해 서울의 특징적인 공간을 텍스트로 표현하고, 영상 디자이너 김상도, 사운드 아티스트 배윤희가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해 서울의 이미지를 재탄생시킨다. 황동규 시인, 김기택 시인, 박라연 시인, 박형준 시인 등이 함께 참여해 문학으로 더욱 풍성한 5월을 선사한다.

문의 연희 문학 창작촌 02-324-4600

문래예술공장 시민문화향유 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 1기 수강

문래동 인근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기타 강좌

'장롱 속 기타 꺼내기'는 10주 완성 통기타 강좌로 문래동 및 영등포 인근지역의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래예술공장에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1기 수강생은 3월부터 강좌가 시작되었고, 6월 1일까지 총 10주 완성 프로그램이다. 총 10주 강습을 받은 후, 스스로 악보나 코드표를 보고 연주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장롱 속 기타 꺼내기'는 2011년 연말까지 총 4회 차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안내

강좌기간	3.30(수)~6.1(수) 매주 화,수요일 오후 4시 30분
강좌장소	문래예술공장 녹음실
문의	02-2676-4300

'놀토'에는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놀자!

<성북, 신나는 놀토 체험>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해 6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북, 신나는 놀토 체험>을 진행한다. <성북, 신나는 놀토 체험>은 2011년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나눔 이벤트의 일환으로 1기 입주단체 미술치료(정여주미술치료연구소), 음악치료(숙명음악치료연

구회), 디자인교육(씨알드림), 장소 특정적 미술(NNR)이 참여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 및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다라 체험으로, 나무목걸이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등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낱씨별 음악극, 재창조 연주, 합창 등을 통해 안전한 음악적 환경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다운사이클 개념 이해와 액세서리 제작 체험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소 특정적 미술 프로그램은 NNR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센터 내의 공간에서 드로잉, 색칠하기, 도자페인팅, 책보 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성북, 신나는 놀토 체험>은 매월 노는 토요일(매월 2째 · 4째주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센터 내의 입주단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안내

일정	5.14, 5.28, 6.11 (토)
시간	오후 1시~5시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각 입주단체 스튜디오
참가비	무료
접수방법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
문의	02-943-9300

방과 후엔 성북예술창작센터 나들이!

<성북예술창작센터와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체험 기회 확대와 창의력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 교육을 위해 성북구청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성북예술창작센터와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를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송파랑 오월이>



<서울연극센터 공연사랑한DAY> 쇼케이스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제공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북예술창작센터의 1기 입주단체 정여주 미술치료연구소, 숙명음악치료연구회, 디자인교육연구소 씨알드림이 참여하여 미술치료, 음악치료 및 디자인교육 수업을 선보인다.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의 협조로 성북구 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사전 접수받아 선정된 예린이치원, 장월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송곡중학교의 122명의 학생들은 11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매주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여 입주 예술단체의 수업에 참여한다.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단체 DOING ART PROJECT 발표회

<무한 작곡가의 밤 (Young musicians, Young composers)>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단체 'DOING ART PROJECT'의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 <무한연주> 발표회가 5월 14일(토) 오후 3시에 열린다. 무한연주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흥미가 있고 기초연주가 가능한 초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단순히 악보를 익혀 연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음악 작품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기르는 통합예술교육이다.

총 7회에 걸쳐 음악의 지각과 인지, 작곡의 기초 다지기, 장르통합수업 등 음악을 경험하고 표현으로 접근하는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에 노출돼 예술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14일 열리는 발표회 <무한 작곡가의 밤>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초등학교 연주자들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모음곡,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사탕 요정의 춤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클래식 체험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두드리는 클래식

어린이들의 예술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는 5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두드리는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클래식 음악을 기초로 하여 유쾌하고 재치있는 퍼포먼스로 어린이들이 듣기 쉽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6~10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고, 관람하러 오는 어린이에게 책을 한 권씩 기증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공연시간 1시간 30분 전부터 선착순 120명 어린이에게 입장권을 배부한다. 시각영역 프로그램에서는 전문디자이너와 함께하는 7주나 디자인 체험을 마치고,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시회가 열린다. 완성된 디자인 작품은 국내 디자인대회 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카페(cafe.naver.com/gakidartsp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00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문화나눔 프로그램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송파랑 오월이>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송파랑 오월이>라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라야구의 열기가 한창인 5월,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의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 관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즌을 겨냥한 것으로, 입주예술가 및 일반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야외공간에 전시하고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마켓&in, 가족 및 연인 관람객에게 한해 무료 기념촬영 및 무료 음료가 제공되는 테라스& 외에도 서양화(유화) 공개강좌교육 등이 알차게 마련되어 있어 종합운동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4월에 진행된 '입주 예술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결과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의 역량과 창작활동 지원에 큰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5월 12일(수)~5월 26일(목)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송파랑 오월이>는 연령, 성별의 제한 없이 누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경



홍은예술창작센터 실내

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자원봉사를 상시 모집한다.

마켓愛in

입주 예술가 및 일반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야외공간에 전시하고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작품 판매 수익금은 예술창작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일반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접수에 관한 문의는 운영사무실(02-423-6674~5)로 하면 된다. (11:00~18:00)

테라스愛

〈송파랑 오월이〉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에 방문하는 가족 및 연인 관람객에 한해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무릎담요를 대여해준다. (14:00~18:00)

서양화(유화) 공개 강좌

김보나 강사와 함께하는 서양화(유화)교육 공개 강좌는 5월 16일(월)과 23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서 있을 예정이며 5월 햇살이 가득한 야외에서 진행된다.

※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프로그램 안내

기간	5.12(목)~5.26(화)
시간	전시 11:00~18:00, 영화상영 14:00~18:00
장소	종합운동장 내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야외테라스
문의	02-423-6674~5

5월 개관 홍은예술창작센터, 본격 프로그램 가동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아트마켓, 지역 방과후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마을지도 만들기

오는 5월 11일 개관을 앞둔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시범운영했던 〈에코와 노닥노닥〉 시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5월 중 2회 운영 예정인 〈에코아트마켓〉은 집 안에 묵혀놓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갖고 나와 물물교환을 통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5월에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하는 대신 물품을 기부하고, 입주예술가들의 소품 기부를 통해 시민과 예술가 사이의 나눔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방과후학교 어린이 30여 명과 함께 진행되는 〈마을지도 만들기〉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을 한 옷가지나 가방 등 다양한 소재로 집모양 나무 패널에 콜라주하여 윤향로 작가가 제작한 홍은동 마을지도 위에 붙여 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직접 구성해보는 프로젝트이다. 완성된 작품은 센터 내에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홍은예술창작센터 02-304-9100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기념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다’, 자연재생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는 5월 11일 개관기념 축하 공연으로 아이덴스컴퍼니와 피아니스트, 콘트라베이스스트, 반도네오니스트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다〉를 야외무대에 올린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피아노가 음악가 부부와 만나면서 예술의 생명력이 충만한 피아노로 부활하는 내용의 작품으로, 재즈댄스계의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덴스컴퍼니의 무용수 10인과 피아니스트, 반도네오니스트, 콘트라베이스스트가 참여한다. 낡은 공간에 버려진 피아노의 슬픈 음률로 시작하여 반도네온과 콘트라베이스의 활기 넘치는 음악으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재즈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어우러져 형상화되는 이 작품은 옛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예술공간으로 변신한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줄 작품이다.

한편, 신당창작아케이드 추영애 입주 예술가와 함께 진행되는 자연재생 체



서울열린극장 창동_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공무원대상 창의예술교육

협프로그램이 개관식 당일 내방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 모직코트나 셔츠 등을 재활용하여 브로치나 머리끈 등의 액세서리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자원재생을 실천해봄으로써 환경보호와 나눔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흥은예술창작센터 02-304-9100

서울열린극장 창동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는 5월 13일 실력파 뮤지컬 배우 김소현, 김선영, 윤영석과 클래식, 오페라, 대중음악 등 여러 장르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스를 리 오케스트라가 함께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미스 사이공', '캣츠' 등 한 번쯤 꼭 보고 싶은 작품의 대표곡을 실제 뮤지컬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며, 뮤지컬 곡 외에 5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영화음악 및 팝송도 만날 수 있어 더욱 알찬 공연이 기대된다.

전석 1만원이라는 저렴한 관람료에 서울문화재단(서울열린극장 창동) 회원은 20% 할인까지 가능하니 사전 예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연안내

기간	5.13(금) 19시 30분
장소	서울열린극장 창동(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관람료	전석 1만원
관람연령	취학아동이상 입장가능(미취학아동 절대 입장불가)
문의 및 예매	02-994-1469 / www.solc.or.kr

남산예술센터 2011 시즌 프로그램

〈푸르른 날에〉

정경진 작, 고선웅 연출의 〈푸르른 날에〉가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의 공동제작으로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제3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

을 무대화하는 연극 〈푸르른 날에〉는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이야기를 30여 년이 지난 지금 구도와 다도의 정신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차범석 희곡상 심사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사연을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구조로 그려낸 눈물과 감동이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푸르른 날에〉는 작년 〈칼로막베스〉로 평단의 관심과 연극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고선웅 연출이 촌철살인의 입담과 특유의 리듬감으로 각색, 연출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신파와 통속, 눈물과 웃음을 넘나들면서도 결코 5.18의 진정성을 놓치지 않는 이 공연은 정재은, 박윤희, 이영석, 김학선 등 대학로 중견 배우들과 에너지 넘치는 극단 마방진 배우들이 함께한다. 스태프로는 〈한여름밤의 꿈〉 〈상사몽〉 등의 작품에서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였던 이윤수 무대디자이너, 〈방자전〉 〈음란서생〉 〈혈의 누〉 등의 영화의상과 연극 〈들소의 달〉로 동양의 미학을 보여주었던 정경희 디자이너, 감성과 이성을 넘나드는 음악과 현장감 있는 음향으로 무대를 채워주는 김태근 음악감독이 〈푸르른 날에〉를 함께 완성해간다.

공연안내

일시	5.10(화)~5.29(일)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문의	02-758-2150

〈서울연극센터 공연사랑한DAY〉 프로그램

미리 보고 싸게 보는 공연 이벤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쇼케이스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공연안내

일시	5.27(금)
장소	서울연극센터 1층 작은무대 & 티켓박스
대상	대학로 공연을 사랑하는 누구나
문의	02-748-9333



연극 <푸르른 날에>

공무원대상 창의예술교육

상상력,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의를 이야기하다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는 날을 꿈꾸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 공무원, 기초단체(각 구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4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총 5기수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대상 창의예술교육 과정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시간으로 창의적인 문화매개자로 전환케 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2011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피아니시모! (Pianissimo!)

‘2011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는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필두로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신진 연주자, 아마추어 등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어려운 실내악이 아닌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어느덧 서울의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SSF는 베토벤, 슈베르트로 이어졌던 그간의 음악 여정에 올해는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로 펼쳐진다. 특히 작곡가이며 동시에 피아니스트였기에 가장 대중적인 악기랄 수 있는 피아노를 위한 곡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SSF는 올해 주제를 ‘매우 여러게’로 많이 알려진 악상 기호가 아닌 악기 ‘피아노(Piano)’에 이탈리아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issimo(의미: 더욱 ~하다, 강조의 의미)’를 붙여 피아노를 특히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피아니시모 Pianissimo’로 정했다.

또한 특별히 이번 SSF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현대식 피아노의 전신인 ‘포르테피아노(fortepiano)’를 선보인다. 고전주의 시대의 많은 곡이 이 악기를 위하여 쓰여졌기에 아직 포르테피아노를 접하지 못한 음악 애호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피아니시모(Pianissimo)’라는 주제로 음악을 통한 실내악의 저변화를 행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문의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무국 02-712-4879 / www.seoulspring.org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 체험 · 재창조하는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

고전미술 속 Castle ‘나의 성을 지어요’

〈아트캐슬展〉과 함께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인 고전미술 속 Castle ‘나의 성을 지어요’는 전시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전시안내

기간	4.16일 ~ 5.26(전시 기간 중 매주 토, 일요일)
장소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
대상	만 5세부터 초등 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인원	각 교육별 20명
문의	02-2157-8777

프로그램 안내

내용	어린이 도슨트 〈아트캐슬展〉의 작품을 강사의 안내 및 설명과 함께 감상 · 체험
미술강의	고전미술에 등장하는 성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배워보는 미술사 수업
만들기 체험	작품감상과 미술사 수업을 통해 익혔던 성을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신청 및 접수	주 단위로 온라인, 현장 교차 접수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과 함께하는 독자사진전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총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서울열린극장 창동,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독자사진전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게재된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M u s i c a l G a l a C o n c e r t



김선영



윤영석



김소현



지휘 박상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2011. 05. 13(금) 19:30

전석 | 10,000원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02-994-1469

서울열린극장 창동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미만은 절대 입장불가)



주최·주관 | 서울열린극장 창동 후원 | 서울특별시

